Weekly 공감

2009 07.01 No.18(통권 119호)
http://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올 여름 녹색으로 놀자

이슈 인터뷰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

허정무號 월드컵 7연속 진출 신화의 비밀

140자 소통혁명 '트위터'의 모든 것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이 6월25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30년 전에 만든 독과점의 우물에서 나와 세계와 경쟁해야 합니다

미디어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신문·방송법은 30년 전에 만들어져 오늘날 미디어산업 여건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칸막이 규제로 세계적인 미디어기업이 탄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투자 유입도 쉽지 않아 만성 적자경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 세금 지원은 갈수록 늘어나 한해 3,000억원 이상이 쓰입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진입장벽을 허물어 신규투자를 늘리고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방송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현재 방송은 지상파 TV 3사가 막강한 여론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과점 체제입니다. 왜곡제작 프로그램과 불륜 드라마가 넘쳐나도 국민들은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널 수를 늘려야 볼거리가 많아지고 뉴스가 다양해집니다. 국민의 방송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방송장악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기업과 신문사 지분은 20%로 제한되어 지상파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MBC와 KBS-2TV 민영화와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OECD 30개국 중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방송채널수가 늘어나면 정부 장악은 불가능해집니다.

미디어산업 일자리 2만개가 늘어납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교 졸업생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고학력 사회입니다. 버젓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미디어관련법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2만개를 새로 만듭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녹색으로 살기…
녹색으로 놀기…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분야별로 논의가 활발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문화전략을 수립하고 6대 전략, 16대 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 중 관광 부문에서는 '녹색관광 육성' 전략을 설정하고 녹색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굴뚝 없는 청정산업'으로 알려진 관광산업도 기후변화 앞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동을 전제로 하는 관광산업은 특성상 항공기와 자동차 등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므로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교통과 숙박시설, 관광활동 등을 포함한 관광 분야에서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약 5퍼센트를 차지한다. 자연자원과 환경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기도 하다.

녹색관광은 날로 더해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발전 패러다임 속에서 관광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이다. 녹색관광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 저감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형태'를 말한다. 지금까지 농산어촌 관광 개념에만 머물러 있던 그린투어리즘에서 벗어나 생태녹색자원의 보전, 지역사회의 역할, 지속가능한 관광을 한데 아우르는 개념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녹색관광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 배출을 완화 또는 저감하는 관광활동 확대와 관광시설 개발, 관광산업 육성 등을 의미한다. 녹색관광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여가환경에 대응하며, 한국 관광산업의 가치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관광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기술과 환경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이른바 '먹고 마시고 노는' 기존의 관광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추구하는 새로운 여행패턴이다. 생태녹색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구를 살리는 여행이며, 이는 한국관광의 매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녹색관광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제주 올레, 지리산 둘레길과 같은 걷기여행이다.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 지향의 사회를 탈피해 '느리게 살되 멋지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슬로시티(Slow City)도 빼놓을 수 없다.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순천만 습지와 우포늪, 서해안 갯벌을 찾는 생태관광도 훌륭한 녹색관광 상품이다.

녹색관광이 유행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의 의지를 넘어 실천을 전제로 해야 한다. 지역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정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남들과 다른 것, 있었지만 주목하지 못했던 자원을 찾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G

Contents

Weekly_2009.07.01_No.18(통권 119호)

조영철 기자

대한민국 그린투어

이제는 녹색관광(Green Tourism)이다.
녹색관광은 사람과 자연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까지 가져올 수 있는
최상의 관광이다.
녹색관광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우리 산하(山河)의 소박한 모습을
즐길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나
녹색관광을 즐길 수 있다.

기·획·특·집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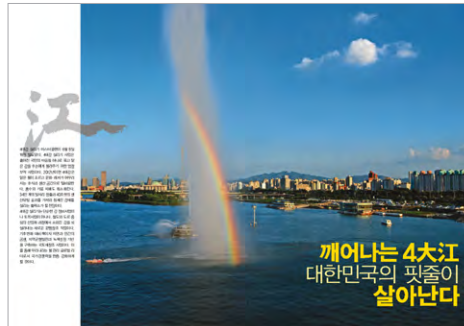
56

08

Weekly 공감

발행일 2009.7.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 〈Weekly 공감〉 17호(6월 24일자)에 실린 이인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읽고 많은 독자들이 위로와 격려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6·25전쟁 당시 강원도 김화전투를 치른 뒤 부상을 당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현재 서울 보훈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분께 격려의 댓글을 보내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군요. 저희 아버님 세대는 전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게 사셨는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그 참상을 모르니 걱정입니다. 정말이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_ TOTO

"파편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전혀 그 통증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후방으로 갈 수 있다는 안도감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주네요. 정부는 국가에 이렇게 충성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젊은 세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할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_ 박주성

"그렇게 희생해서 나라를 지켰는데 아직까지 통일도 하지 못하고 두 동강이 난 나라의 현실이 가슴 아프네요. 증언을 들으니 마치 내가 전장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방패 삼아서라도 포탄을 맞지 않으려는 처절한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네요~~. 심적 고통이 크셨을 텐데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_ 음악나무

"저 시대를 살아내신 세대에게 무한한 헌사를 보냅니다. 언젠가 TV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 찾아주기 프로그램을 보면서 숙연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념과 체제는 차치하고 전쟁터에서 그 시간들을 보낸 남북한 젊은 병사들에게는 산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_ 조영인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_ 뜬구름하나

●● 16호(6월 17일자) '4대강 살리기 대특집'을 읽고 한 독자가 독려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강바닥에 쌓인 퇴적물과 오물을 제거하고, 강 주변 환경을 정비하게 되면 물고기가 숨쉬기도 좋고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흐르는데 왜들 반대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성 후의 그림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찹니다. 중국에서 여객선을 타고 경인운하를 거쳐 한강을 지나면서 서울을 관광하고 양평을 거쳐 여주를 지나 충주까지 이르는 관광 코스도 만들어 전 세계에 여행 코스로 선전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후손들을 위한 투자라 생각하면 16.9조원이 문제가 아니라 1백조원이 들어가도 공사를 해야 합니다." _ 이도령sese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똑똑똑… 궁금합니다

●● 17호 중점기획 '다시 보는 6·25전쟁'을 읽고 독자들이 현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올렸습니다. 그중 한 독자의 댓글과 답변을 소개합니다.

"대북관계에 별반 신경도 쓰지 않는 현 정부의 '정책공감'에 전쟁의 아픔을 실은 글들이 올라오니 상당히 의외군요. 전쟁억지력인 국방예산은 깎고 대북지원은 안 하고 개성공단은 폐쇄사태까지 오게 만들어놓고…. 6·25전쟁 때 한강다리 끊고 도망간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게 현 정부 및 그 지지 기반의 기조 아닙니까?" _ WeRock

▶ 말씀의 요지는 정부가 전쟁 예방이나 대책에 대해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겠지요. 당연한 지적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을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대북지원도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비핵 개방화'를 조건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으로서 기리는 것이지 무리한 연결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한 누리꾼이 소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이 특정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있는 것에 대해 그 이유가 궁금한지 댓글을 달았습니다.

"왜 관영 블로그가 '다음' 메인에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네요." _ WildIdle

▶ 소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 있어서 궁금하셨군요. 현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누리꾼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에 블로그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관영'이니 '민영'이니 하는 편견은 버리시고 이곳을 방문하셔서 격려와 질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퍼즐

	1		2		
3					
				4	
5				6	
			7		
		8			

정답을 적어 주소·연락처와 함께 7월 8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서 몇 분을 뽑아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가로

2. 우리나라 4대강의 하나. 전남 담양군에서 시작해 광주, 나주, 함평, 무안을 지나 서해로 흘러 들어가죠. 황포돛배와 함께하는 미각여행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3. 농어촌의 자연과 문화, 여유로움과 평온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을 우리말로 하면 OOOO이 되겠죠. 제주 올레길을 걷는 여행 등이 좋은 예입니다.

5. 직장과 학교, 가사 등에서 벗어나 잠시 쉬는 것. "이번 여름OO는 농촌체험마을로 가기로 아이들과 약속했다."

6. 벌이 알을 낳고 먹이와 꿀을 저장하며 생활하는 곳. 잘못 건드리면 큰일이 나죠. "조용하던 집안이 OO을 쑤셔 놓은 것 같았다."

8. 친환경적인 생태관광을 뜻하는 영문 용어. 도시민들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관광 형태입니다.

세로

1. 태극기의 태극 문양에서 아래쪽 문양의 색깔.

2. 전라남도에 있는 어항으로 예부터 굴비로 유명한 곳.

4. 우리나라 이것의 80퍼센트 이상이 서해안에 분포하죠.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밖으로 드러나지요. 각종 해조류와 조류의 서식지로서 생태탐방과 체험활동이 활발한 곳이죠. 순천만은 세계 5대 이것 중의 하나.

5. 편안하게 쉬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숲. 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사시사철 이용객이 많아 인기가 높죠. 산과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7.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라는 뜻의 부사.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은 OO 아니다."

〈Weekly 공감〉 16호(6월 17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3 금수강산 5 영산강 6 생태 8 화기애애 9 낙동강
세로 1 한강 2 섬진강 3 금강 4 산영 7 태화강

당첨자

김준상(광주시 서구 금호동) 박기순(대전시 중구 문화동)
윤승환(서울시 강동구 성내2동) 주유정(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탁효원(경남 사천시 동림동)

"사회안전망, 현장의 소리 듣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전폭 개편, 퇴직 전문가 해외 파견

정부가 내년부터 고급 퇴직인력의 해외 진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사회안전망 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6월 24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제20차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회의를 열고 고급 퇴직인력 해외 진출 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희망키움뱅크 신청자에게 맞춤형 컨설팅 제공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희망키움뱅크' 사업도 개선된다. 이 사업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보증·무담보로 소액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것. 지원 대상은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층 개인. 자활공동체에는 최대 1억원, 개인에게는 최대 2천만원이 융자된다. 정부는 사업수행기관을 전국 4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 신청자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창업자가 경영개선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고객개발 방법 및 실무, 제품 분석을 통한 매출 향상 방법 등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고, 현재 중소기업청이 실시 중인 '자영업컨설팅 지원사업' 과 연계해 창업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 수행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영비 지급을 일괄지급에서 성과별 지급방식으로 개편했다. 또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자립자금지원정보센터 설립, 마이크로크레디트 센터 설립,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를 통한 일자리대책 추진 결과 그동안 취업하지 못한 청년, 여성, 노인 등 67만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1백명 이상인 사업장 6천7백81곳 중 1천7백55곳(25.9퍼센트)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했으며, 2백62만5천명에게 고용 및 창업지원이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영준 국무차장은 "그동안 수립한 일자리대책과 사회안전망 관련 계획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집행되고

동아DB

정부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의료 등의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퇴직인력을 개발도상국 파견사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토록 하는 등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TF가 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선발자격 심사 강화

시행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전폭 개편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과 함께 지역영세상권 활성화를 위해 약 25만여 명을 선발해 각종 사업에 투입하는 것. 6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일당 3만3천원 중 30~50퍼센트는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신청자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7월부터 적격자로 교체 투입하는 등 선발자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공공근로처럼 도로변 도랑치기, 잡초 오물 제거 등 단순 취로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따라 비생산적 사업에 획일적인 인력 투입을 지양하고, 지방비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생산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집행키로 했다.

적격자가 없음에도 인원 채우기식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막고 작업 강도, 고령 등으로 인한 중도 포기자가 없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6월 중순까지 중도 포기한 사람은 총 선발인원 28만5천여 명의 10.5퍼센트인 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다는 등의 상품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 로고를 부착하기로 하는 등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상품권 이용 가맹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유흥업소, 대형마트, 학원 등 상품권 사용불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상품권을 받도록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현장 방문 및 공무원 현장체험을 통해 제도 보완책을 추가 발굴해 계속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개발도상국에 퇴직 전문가 파견

기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운영해온 '전문가 파견사업과 봉사단 파견사업'이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World Friends Advisers)'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 자문 및 기술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분야는 △경제 개발 △인적자원 개발 △농업 발전 및 도시 개발 △행정제도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육성, 에너지 △환경정책 △보건의료 등 8개 분야다. 정부는 이 사업에 관련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 50명을 파견한 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도 내년에 50명을 별도로 파견한 뒤 연차적으로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퇴직전문가 파견사업(Gray Expert Project)'을 따로 신설했다. 이 사업은 KOICA의 '전문가 파견사업'과 유사하지만 고급 퇴직인력 활용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이 특징이다. 파견 국가의 기술·경영 자문을 통해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도 지원하게 된다.

동아DB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문제점을 개선해 작업 강도, 고령 등으로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 **"일자리대책과 사회안전망 관련 계획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토록 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주로 전력시스템, 물 관리·가뭄정보 시스템, 교통카드 시스템, 원전 개발 및 관리, 공항 운영관리 등 공공서비스 수출과 연계가 가능한 분야의 개발도상국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게 된다. 파견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파견 국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집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우크라이나, 가나, 스리랑카, 멕시코, 페루, 과테말라 등 개발도상국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더 나은 고급 퇴직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퇴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은 "퇴직인력의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이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공공서비스의 개발도상국 수출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 · 이진구(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서민 챙기기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들의 경제와 생활이 살아 숨쉬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 안을 돌아보고 있다.

이문동 시장 골목에… 대통령이 떴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이 더 고생, 마음 아파"

중도 실용 개념을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의 생활 현장을 찾았다. 대표적 소상공인 밀집지역인 서울 이문동 골목 안에서는 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가슴에 담기 위한 이 대통령의 발길이 분주했다.

6월 25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골목상가. 정장과 와이셔츠를 벗고 가벼운 티셔츠에 하늘색 점퍼를 입은 이명박 대통령이 참모들을 뒤로하고 골목 안 가게에 들어가 뜻밖의 손님을 맞은 상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문동에서 서민 삶의 현장을 2시간가량 누비며 민생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참모들과 마이크로버스로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이 먼저 찾은 곳은 이문1동 주민센터. 이 대통령은 반가이 맞이하는 직원들에게 "20대에 이문동에서 산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민센터 안에 있는 구립 보림어린이집을 찾아 환한 얼굴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었다. 주민센터 내 탁구교실에 들른 이 대통령은 중년여성들과 복식 경기를 10분 동안 즐겼다.

이날 복식 경기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 주민들의 제안으로 즉석 경기를 갖게 된 것이다. 곧이어 골목 안을 돌며 구멍가게 할머니의 하소연을 듣기도 하고, 뻥튀기 가게에서 "어릴 때 길에서 만들어 팔았다"며 뻥튀기를 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일 노점상, 떡볶이집, 식품 가게 등을 들렀다. 떡볶이집에서 우연히 대통령을 만난 남자 고등학생들은 공짜로 어묵을 먹는 행운을 안기도 했다.

이문동 골목 안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은 떡볶이집을 지나던 남자 고등학생들이 떡볶이를 사달라고 하자 "이리 와, 하나씩 먹어"라며 함께 어묵 꼬치를 집어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학생들의 인사에 이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 "응, 몇 개 먹었는지 알아.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이렇게 젊은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다양한 업종의 상인들, 길 가던 행인들과도 인사를 건네고 얘기를 나누면서 골목 안 탐방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인근 식당에서 지역 상인 대표들과 함께 버섯전골을 들며 간담회를 가졌다.

"하반기 경제운용 초점 역시 서민"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이 서민층이고, 경제가 좋아져도 서민이 제일 마지막까지 고통을 받는다"며 "앞으로 1, 2년 더 서민들이 고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날 상인들은 "최근 대형마트가 인근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대형 슈퍼와 마트의 무분별한 개점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마트 규제는 법적으로 안 된다. 그보다는 공동구매나 직거래로 가격을 떨어뜨리고 주차장 정비 등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민간 자율이 우선이지만 정부도 사회분위기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는 노점상 하는 분들에게도 소액이더라도 어떻게든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 4월 30일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서 만나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사채 피해자가 고맙다며 편지를 전해온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같이 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대안이 없는가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문동 방문에 앞서 가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며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 생활에 맞추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개혁,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오늘 민생 탐방은 이 대통령이 서민과 현장을 중시하는 'MB다움'으로 복귀하는 첫 행보"라며 "앞으로 다양한 계층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박경아 기자

OECD "내년 경제성장률 한국 3.5%로 1위"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우리나라의 기업경영환경은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환경은 무역·환율관리 등에서는 개선됐고 정치·사회 부문에서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현황 분석과 투자·비즈니스 컨설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09~2013년 기업경영환경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경영환경이 이전 조사(2004~2008) 때보다 3단계 올라 27위를 기록했다.

6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14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IU 국가별 기업경영환경 평가와 전망'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됐다.

1946년 설립된 EIU는 세계적인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의 발행사인 이코노미스트그룹 부설 경제연구소다. 1996년 이후 82개국의 향후 5년간 기업환경을 평가하고 전망해온 EIU는 정치환경, 거시경제환경, 시장기회, 10개 분야 91개 지표로 국가별 순위 변화를 발표한다.

EIU의 이번 기업경영환경 평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82개국의 평균 기업경영환경 점수가 6.47에서 6.41로 0.06 포인트 떨어져 1996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세계 기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7→12위)과 영국(13→25위)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분석됐다. 싱가포르(2위), 홍콩(4위) 등은 최상위권에 포진했고 3계단 오른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16위·4계단 상승), 중국(45위·11계단 상승) 등은 순위가 상승했다.

2009~2013년 EIU 기업환경 순위

순위	국가명	순위 변동
1	핀란드	⬆ 2
2	싱가포르	⬇ 1
3	캐나다	⬆ 1
4	홍콩	⬇ 2
5	스위스	– 0
6	덴마크	– 0
7	호주	⬆ 4
8	스웨덴	⬆ 2
9	노르웨이	⬆ 5
10	네덜란드	⬇ 2
11	뉴질랜드	⬆ 1
12	미국	⬆ 5
13	독일	⬆ 2
:	:	:
27	한국	⬆ 3

※ 2004~2008년 대비

AP

우리나라는 전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됐다.

"규제 완화 등 정부 정책적 노력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경영환경 점수와 순위 모두 상승했다. 기업경영환경 점수는 7.04에서 7.07로, 순위는 30위에서 27위로 오르면서 지난번 평가 때와 같은 자리(28위)를 지킨 일본을 한 단계 추월했다.

우리나라는 무역·환율관리, 기업·경쟁정책과 FDI(외국인 투자)정책, 조세제도 등에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으며 정치환경과 시장기회는 각각 북한의 핵 도발, 성장과 수출악화 우려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2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2.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가 세계 교역이 회복되면서 2010년에는 3.5%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힘내라 대한민국

아하
강이 거기 있었구나

'천일의 약속'
깨어나라 4대강아!

물부족 · 물오염 · 물난리 없는 내일을 위해 4대강 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14조 원 투입, 일자리 19만 개 창출!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4대강 살리기!
이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물의 가치가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강변, 맑은 물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경택 기자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 정병국 의원
"신문·방송 칸막이는 여론 다양성 제한"

정병국 의원은 방송과 통신이 결부되면서 산업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최근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중책을 맡은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만나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의 의미를 들었다. 다음호(19호)에는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지상파 중심으로 채널이 한정돼 있었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 IPTV가 본격화하면 무한한 채널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지상파 중심의 칸막이는 필요 없게 됩니다. 칸막이를 설치해 놓는 것 자체가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여론 독과점에 의한 폐해도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은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몹시 안타까워하며 입을 열었다. "과거 지상파 중심의 법체계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으므로 미디어 관련법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언론 자유의 신장 △산업적 측면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미디어 관련법 제·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미디어 관련법 제·개정이 현 시점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 지상파 중심의 법체계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상파 중심의 법체계는 공중파라는 말처럼 전파의 한정성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이 결부되면서 산업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체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 문제도 법안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하나인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겸영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IPTV시대가 곧 열립니다. 다매체·다채널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문과 방송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칸막이는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을 제약할 뿐입니다. 저도 과거 지상파 중심의 시대에는 칸막이를 여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방송 환경이 한정적일 때 신문이나 대기업

자본이 결부되면 독과점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다매체 · 다채널의 IPTV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독과점) 염려는 없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 즉 IPTV시대가 오면 일반 국민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상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IPTV시대가 본격화하면 국민 생활에 대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널 중심으로 방송을 선택해왔다면 앞으로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KBS를 볼 것이냐, MBC를 볼 것이냐 하는 채널 선택의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영화를 볼 것인가, 음악쇼를 볼 것인가, 스포츠를 볼 것인가 등 채널이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채널이 생기고 특화된 채널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방송사가 공급하는 방송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쌍방향 소통이 무한대로 가능해집니다. 사교육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EBS에서 교육방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 방향 방송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거나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질문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쌍방향 TV에서는 질의 · 응답도 가능합니다. 군대에 간 자녀와는 화상으로 면회를 할 수도 있고요.

방송과 통신이 결합되면 생활 전반에 질적인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이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상당수 국민들이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먼저 법안 자체에 대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방송 · 통신 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먼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기술 발달 등으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뒤따라서 법이 만들어지는데,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의 경우 법과 환경 변화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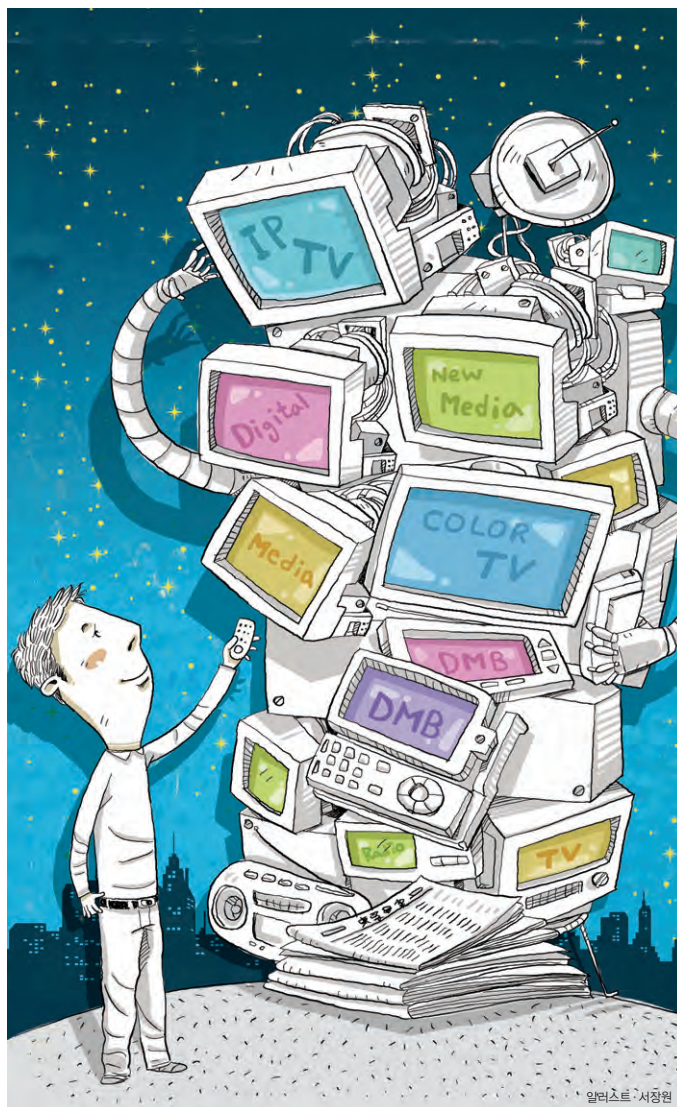
또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 일방적으로 '방송을 재벌 줄래?' 하며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호도하고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사람들이 함께 국민을 호도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 독과점이 심화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송국 수가 많아지는데 여론 독과점이 확대된다는 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또 '한나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데, 그럴 생각도 의지도 없지만 만약 방송을 장악하려면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쉬울 겁니다.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차분하게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국민 여론도 차츰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되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하던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IPTV가 본격화하면 부가서비스가 많아집니다. 이 부가서비스를 통해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통과돼 IPTV시대가 활짝 열리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G

글 · 구자홍 기자

일러스트 · 서장원

다매체 · 다채널의 IPTV 시대가 열리면 여론독과점의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정예강군으로 미래위협 제거한다

'정예화된 국군 건설' 국방개혁 2020 수정안 발표

고심을 거듭한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이 발표됐다. 2006년 12월 1일 찬성 1백 20표 대 반대 7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이 법에 따른 시행안을 수정하는 최종안이 마련된 것이다.

국방개혁 2020 수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합참1차장제 신설이다. 국방개혁법 23조는 합참은 합동전을 수행할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된 것이 합동군사령부의 신설이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사령관은 대통령이다. 이러한 대통령이 유사시 작전부대를 잘 지휘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군령 보좌)이 합참의장이 해야 할 고유 임무다. 그런데 대통령은 군사작전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할 대리인을 정해놓았는데, 이것이 한국군에서는 바로 합참의장이었다.

하지만 유사시 한 사람(합참의장)이 대통령에 대한 군령 보좌와 합동군사령부 지휘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둘을 나눠야 제대로 된 위기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국방개혁법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23조를 신설했다. 합동군사령부 설치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방개혁법은 67만명인 한국군을 50만명으로 줄이면서 과학화·기술화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따라서 합동군사령관과 합동군사령부를 설치하면 병력 감축이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 법 정신을 살리면서 합동군사령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에서 찾아낸 해법이 바로 합참차장을 1, 2차장으로 나누는 것. 수정안은 합참의장은 대통령에 대한 군령 보좌를 하고, 합참1차장은 합동군사령관 역할을, 합참2차장은 기존의 합참차장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참1차장 신설, 수방사 지역군단 편제 5-2-3 체제로

합참1차장은 신설하지만 합동군사령부는 별도로 만들지 않는다. 작금의 합참에는 육해공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작전본부가 설치돼 있으므로 합참1차장은 이 본부를 합동군사령부

국방개혁의 근본 목표는 전력증강이다. 이를 위해서는 병력 위주의 군을 장비 위주의 과학기술군으로 바꿔야 한다.

로 활용한다. 그리고 합참2차장은 '전략(戰略)기획본부'와 '전력(戰力)발전본부'를 이끌고 합참의장을 보좌한다. 합참1차장은 합동군을 지휘하는 합참의장이 하던 중요한 일을 떠맡았으므로 대장을 보임한다.

국방개혁안을 실행하고 예정대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 육군에서는 대장 보직이 두 개 줄어든다. 1군과 3군이 통합해 지작사(地作司)가 되면서 대장 보직이 하나 줄고,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연합사 부사령관 자리가 사라져 또 한 자리가 없어진다. 사라지는 육군의 대장 보직 중 하나를 합참1차장으로 살린다는 것이 수정안에 담겨 있는 복안이다. 반면 합참2차장은 해공군 출신의 중장(대장도 가능하다)이 맡게 된다.

육군 구조 개편에도 변화가 있다. 국방개혁 원안은 현재 9개 지역군단-1개 기동군단-4개 기능사(수방사, 특전사, 항작사, 유도탄사) 체제인 육군을 4개 지역군단-2개 기동군단-4개 기능사 체제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수정안은 기능사 중 하나인 수방사를 지역군단으로 개편해 5개 지역군단-2개 기동군단-3개 기능사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그리고 북한 급변사태 같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육군 병력을 1만7천여 명 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단 수도 원안보다 4개 정도 덜 줄이게 됐다.

국방개혁은 상비군 규모 축소를 전제로 하는 만큼 예비군 능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수정안을 토대로 정예 강군을 만들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포부다.

수정안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측면도 있으므로 전력증강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를 축소했다. 원안은 2020년까지 6백21조 3천억원을 투입해 전력을 증강하기로 했으나 수정안은 22조 줄여 5백99조 3천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전력증강사업의 집행 연도가 조금씩 뒤로 늦춰졌다. 해·공군은 장비로 무장하는 기술군인 만큼 전력증강사업의 단위가 커 해·공군의 전력증강사업들을 조금씩 미뤄 집행하기로 했다.

육해공군 네트워크 구축… 전력구조 재설계

해병대는 육군과 유사한 부대인지라 원안은 4천명을 축소하기로 했다. 해병대 감군은 서해 5도를 지키는 부대와 서부전선을 지키는 부대에서 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계속된 미사일 발사 위기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안은 서해 5도를 지키는 해병부대 감군은 2020년 안보상황을 평가해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해군과 공군 조직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 국방개혁 원안은 해군의 항공전력을 확충해 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증강한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태영 육군 대장을 합참의장에 임명하는 이명박 대통령. 국방개혁 수정안은 합참에 1, 2차장을 둬 1차장은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하게 한다.

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수정안은 전력증강 예산이 축소돼 해군 항공전력 증강사업이 늦춰짐에 따라 항공전단 체제로 그대로 가기로 했다. 공군은 육해군에 대한 공중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므로 원안에 있는 전술항공통제대대를 수정안에서는 전술항공통제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전은 육해공군이 유기적으로 연결해 싸우는 네트워크 중심전이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동일 표적에 대해 중복 사격을 하는 오류가 줄어드는데, 이를 위해서는 육해공군을 하나로 엮는 국방정보화를 이뤄야 한다. 합참1차장이 이끌 합동작전본부가 합동군사령부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이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수정안은 네트워크 중심전을 펼칠 수 있도록 전력구조 설계를 다시 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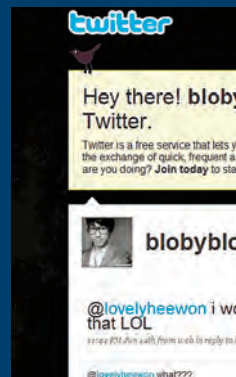
또 북한 핵과 미사일, 그리고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감시하는 능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러한 감시 장비에는 무기가 달려 있어 북한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를 제압하는 행동을 바로 할 수 있다. 적정(敵情)을 감시하는 장비가 적을 무력화하는 역할까지 하기에 이를 영어로 센서 투 슈터(Sensor-to-Shooter)라고 한다. 수정안은 이 기능을 하는 무인항공기(UAV · Unmanned Aerial Vehicle) 같은 장비를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수정안에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나라로 활동하기 위해 육군 특전사 예하 여단을 조정해 언제든지 해외 파병을 할 수 있는 1천여 명 규모의 상비부대를 만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부대는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부대로 활용된다. 그리고 추가 파병과 이미 파병돼 있는 부대와의 교대 등에 대비해 같은 규모로 예비부대를 편성해 놓기로 했다.

국방개혁은 상비군 규모 축소를 전제로 하는 만큼 예비군 능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수정안을 토대로 '정예화된 강군'을 만들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포부다. G

글 · 이정훈(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140자 소통혁명 트위터를 아시나요

김연아 선수, 가수 타블로,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트위터 이용자들이다.
한 줄로 쓰는 블로그 서비스 트위터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사로잡은
트위터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난 6월 17일 방미(訪美)한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워싱턴대에서 "트위터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후 트위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이 대통령은 트위터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 소설가 이외수 씨 등 유명인의 트위터 가입이 줄을 잇고 있다.

트위터(Twitter)는 직원이 60명 남짓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이면서 서비스 이름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피겨 요정 김연아,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트위터의 정체는 무엇일까?

트위터는 쉽게 말해 한 줄로 쓰는 블로그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된다. 여기에 싸이월드의 일촌 맺기처럼 인맥을 만들 수 있는 '팔로(Follow)' 기능이 더해졌다.

e메일,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1백40자 이내의 짧은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 나를 팔로잉(following)해둔 사람들에게 인터넷,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예를 들어 내가 김연아 선수(@Yunaaa)를 팔로잉해두었다고 치자. 그가 올리는 글이나 사진을 내 트위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식이다.

2006년 8월 문을 연 트위터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 47만5천명이던 회원 수는 1년 새 1천4백73퍼센트 증가한 7백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이용자 수는 3천2백만명에 이른다.

트위터의 인기는 기업의 가치도 높이고 있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조스는 벤처 투자업체와 함께 이 회사에 1천5백만 달러를 투자했고, 또 다른 벤처 투자사도 3천5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국내에서도 트위터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랭키닷컴(rankyup.com)에 따르면 5월 넷째 주에 12만명이던 방문자는 다섯째 주에는 24만명으로 한 주 사이에 2배로 뛰었다.

트위터가 단시간에 이처럼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된 데는 간편함과 함께 소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백40자로 제한된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들은 얼핏 보기에는 일상에 대한 단상이나 사회 이슈에 대한 짧은 반응들로만 보인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한마디는 서로 소통하며 커다란 '이야기 그물'을 만든다.

이 이야기 그물에 담기는 이야기는 일상의 신변잡기뿐 아니라 사회, 문화, 기술까지 그 주제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트위터가 기존 미디어가 담지 못하는 이야기까지 전달하면서 전통적인 미디어 역할을 위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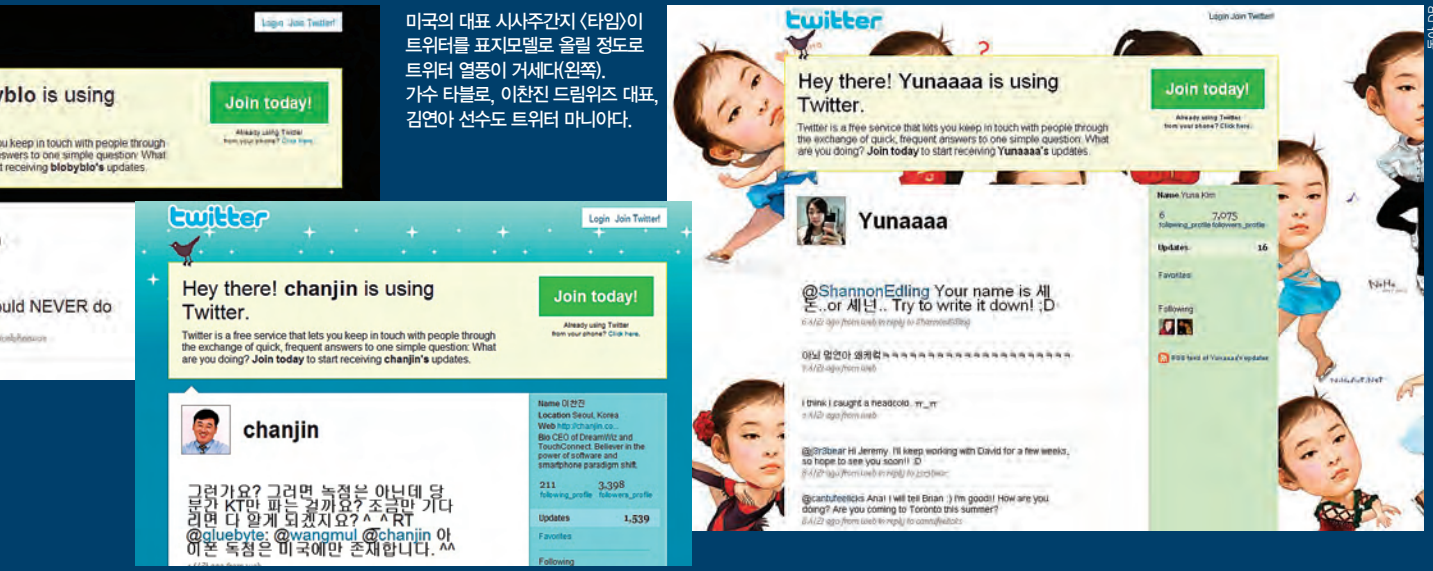
일례로 최근 이란의 부정선거 사태가 벌어졌을 때 트위터는 〈CNN〉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테헤란의 젊은이들은 이란 정부의 방송과 통신 통제를 뚫고 트위터를 이용해 이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개개인의 작은 이야기가 실핏줄처럼 퍼진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로 퍼졌고, 일부 언론은 트위터를 이용해 이란 사태를 보도했다.

글 올리면 실시간 체크… 이용 간편해

허블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 우주왕복선 아틀라스호에 간 마이클 마시미노가 우주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한 것도 트위터였다. 빡빡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마시미노는 "지난밤 자려고 눈을 감으면서 '오늘 아름다운 것을 참 많이 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지난밤 우주를 유영했을 때 바라본 것들이 아직도 생생히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개인적인 감상을 트위터에 올려 전 세계 30만명과 소통했다.

트위터를 마케팅에 이용해 성공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인 가족이 운영하는 트럭 노점상 '고기(KOGI)'는 판매장소를 하

미국의 대표 시사주간지 〈타임〉이 트위터를 표지모델로 올릴 정도로 트위터 열풍이 거세다(왼쪽). 가수 타블로,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 김연아 선수도 트위터 마니아다.

동아 DB

루에도 두세 번씩 바꾸고, 영업시간도 일정하지 않지만 트럭이 도착하면 이미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을 정도다. 이동·판매 스케줄이 변동될 때마다 인터넷으로 맺은 '1촌 고객들(follwer)'에게 트위터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마시미노와 고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트위터의 또 다른 매력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간편함이다. 휴대전화나 개인 휴대 정보단말기(PDA), 아이팟, 메신저 등을 이용해 손쉽게 트위터에 글을 올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트위터는 아직까지는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남들보다 먼저 신제품을 사서 써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지만 차츰 정치, 문화 쪽으로 이용자가 확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트위터 이용자는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다. 이 대표는 최근 핫이슈인 아이폰 도입과 관련한 소식을 트위터에서 발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소설가 이외수 씨도 최근 트위터에 가입해 순간의 단상을 한글과 영어로 올리고 있다. 이 밖에 가수 타블로 같은 연예인들도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다.

트위터에 가입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트위터(twitter.com) 홈페이지에 접속해 'Get started–join'을 클릭하면 가입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간다.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없이 e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만 설정하면 나만의 트위터를 만들 수 있다.

트위터 이용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팔로어(Follower)'와 '팔로잉(Following)'이란 용어다. 다른 사람에게 인맥 맺기를 신청하는 것을 팔로잉이라 하고, 나를 팔로잉한 사람을 팔로어라고 한다. 상대방이 나를 팔로잉하지 않더라도 내가 팔로잉한 사람이 올린 글은 볼 수 있다.

또 리트윗(RT)이라는 트위터만의 독특한 문화도 있다. 내가 인맥 맺기 해둔 사람의 말을 팔로어에게 전달할 때 쓰는 용어로 'RT @글쓴 사람 ID 원래문장' 식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가 '으악 늦었다!! 자야지'란 글을 올린 것을 여러 명에게 알리고 싶다면 'RT @Yunaaa 으악 늦었다!! 자야지'라고 쓰면 된다.

e메일,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1백40자 이내의 짧은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 나를 팔로잉(following)해둔 사람들에게 인터넷,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트위터의 미래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상태다.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시각과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실제로 트위터는 창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수익이 전무한 상태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대표는 "트위터의 성공은 사람들이 '단문 형태의 소통'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 것일 뿐, 트위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위터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통 방식을 경험하게 해주며 열렬한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듯하다. G

글 · 이수운(전자신문 기자)

문자메시지 · 트위터 · 블로그 비교

구분	문자메시지	트위터	블로그
디바이스 기반	휴대전화	모바일 웹 (스마트폰, 휴대전화 인터넷)	유선인터넷
통신 비용	1건당 20원	인터넷 연결되면 무료	거의 없음
소통 방식	1대 1	1대다(관계 맺은 지인들)	1대다(모두에 개방)
메시지보관, 검색, 웹과연결성	X (저장용량한계)	○	○
실시간	○	○	X

Rex

마이클 잭슨은 흑인과 백인 모두의 사랑을 받은 최초의 가수였다.

2009년 6월 25일 마이클 잭슨 심장마비로 사망

팝의 제왕, 전설이 되다

6월 25일(현지 시각) 심장마비로 사망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1980년대를 관통하는 전 세계적 아이콘이었다. 그의 앨범 〈스릴러〉는 전 세계적으로 1억 장이 팔려나갔다. 그가 남긴 음악적 성과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1983년 처음으로 TV에서 마이클 잭슨이 '빌리 진(Billie Jean)'을 부르며 유연하게 뒷걸음질 댄스를 했을 때 사람들은 넋을 잃었다. "도대체 저걸 어떻게 추는 거지?" 마치 달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해서 '문 워크(Moon Walk)'라고 불린 그 춤은 순식간에 전 세계 젊은이의 모방 본능을 자극했다. "왜 마이클 잭슨의 얼굴이 하얗게 바뀐 거야?" 하고 의심할 여유가 없었다. 필자도 방에서 몰래 문 워크를 흉내 내다가 뒤로 넘어져 다치는 봉변을 겪었다. 아마도 그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그랬을 것이다.

하긴 전설적인 춤의 배우 프레드 아스테어가 '경이적 춤꾼(Wonderful Mover)'이라고 격찬한 사람의 동작을 어찌 쉽게 재현할 수 있겠는가. 여배우 제인 폰다는 "마이클 잭슨의 음악에 맞춰 춤출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섹스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 그의 음악을 듣고 가만있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춤만이 사람들을 홀린 것은 아니었다. 천재적인 감정표현과 비트 감각에다 가창력 측면에서도 그는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1958년 태생으로 열 살 때 형제그룹 '잭슨 파이브'의 리드싱어가 되어 1970년대 개막과 함께 'I want you back' 'ABC' 그리고 지금도 널리 애청되는 명곡 'I'll be there'를 히트시키며 스타덤에 올랐다.

그룹을 나와 열네 살에 발표한 곡 '벤(Ben)'도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대스타였던 것이다. 이 모든 영광은 춤이 아니라 천부적 음악재능, 즉 가창력이 동반됐기에 가능했다. 그는 비트 감각이 요구되는 빠른 댄스곡에도 능했지만 풍부한 감정표현과 정확한 음 구사능력으로 발라드에도 실력을 발휘했다. 'She's out of my life', 'Heal the world', 'You are not alone'과 같은 곡들이 이를 말해준다.

춤과 노래만이 아니라 나중에 성인이 되어 발표한 기념비적인 앨범 〈오프 더 월(Off The Wall)〉과 〈스릴러(Thriller)〉로 알 수 있듯 앨범의 녹음기술 측면에서도 그의 음악은 언제나 유행을 선도했다. 모든 점에서 완벽해 앨범을 살 수밖에 없었다. 국내에서도 〈스릴러〉가 LP시대에 무려 50만 장 이상 팔려나가는 기염을 토했다. 세계적으로는 1억 장 판매고를 수립해 지금도 단일 앨범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의 앨범은 단연 〈스릴러〉와 〈오프 더 월〉. 1987년의 〈배드(Bad)〉 앨범은 열혈 마니아들이 선호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이래로 전 세계 키드들은 마이클 잭슨을 팝의 제왕(King of Pop)으로 여기며 그의 음악과 공연을 찬미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했다. '팝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은 그의 열혈 팬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붙여주었다. 한국도 이전엔 댄스음악, 댄스가수라는 수식이 없다가 마이클 잭슨 시대를 맞아 일반화됐다.

백인이 가장 사랑한, 흑인이 낳은 최고의 스타

그는 또한 음악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었다. 그의 슈퍼스타덤에는 백인지배사회에서 신음한 흑인들의 비상 욕구와 자긍심이 저류하고 있다. 그와 같은 흑인스타들의 분발로 설움과 차별에 시달려온 흑인들은 자신감을 획득했고 그 결과 우리 생애 어려울 것 같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보게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어린이 성추행 파문, 성형수술 부작용, 결혼 실패, 재정적 파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마이클 잭슨의 인기는 추락했다. 그에 따른 장기간 칩거로 2001년 〈인빈서블(Invincible)〉 앨범 이후 8년간 신보 한 장 내지 못했다. 이제는 마지막이 된 그 앨범마저 발표 당시 '무적'이라는 제목답지 않게

연합

마이클 잭슨 사망 소식을 듣고 팬이 그의 사진이 들어 있는 베개를 안고 울고 있다.

전통 흑인이라고 할 수 없는 말끔하고 준수한 외모와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그의 출중한 역량은 1980년에 시작된 음악 전문채널인 MTV시대와도 맞물렸다. 마이클 잭슨과 함께 음악의 중심은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이동했다. '비주얼 댄스' 시대가 열린 것이다. 마이클 잭슨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후반 소방차, 박남정, 김완선 등의 댄스가수가 속출했다. 서태지도 어릴 적에 마이클 잭슨을 동경하면서 댄스음악의 무한 파괴력을 가슴속에 담아뒀을 것이다.

마이클 잭슨은 성인이 된 후 30년간 활동을 하면서 겨우 여섯 장의 독집앨범을 낼 만큼 과작(寡作)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때문인데, 그럼에도 무려 17곡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 비틀스의 20곡에 근접했고 앞으로의 활동으로 충분히 능가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솔로 가수 가운데 1위곡 최다 보유자'의 기록만을 갖는 데 그치게 됐다. 평단에서 꼽는 최고

2백만 장의 판매고에 그쳤다. 싱글도 부진을 거듭하는 참패를 당했다. 음악 관계자들은 "이제 마이클 잭슨은 끝났다"고 했다.

10년간 마이클 잭슨 관련 소식은 온통 우울하고, 때에 따라서는 비참한 것들이었다. 예정된 영국 공연으로 화려한 재기를 꿈꾸었지만 아마도 이에 대한 강박이 더욱 건강 악화를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전 공연에서 당한 부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것이 사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스와 같은 높이를 자랑하는 그의 음악사적 위상이 견고하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한다. 1980년대의 음악계는 마이클 잭슨의 것이었다. 그 이상으로 백인들의 사랑을 받은 흑인은 없다. 그의 급작스런 사망은 아마도 전설의 지평을 더 위로 올려줄 것이다. 벌써부터 그와 함께했던 즐거운 순간들에 대한 그리움이 시작됐다. G

글 · 임진모(음악평론가)

제3차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 합의문 채택

"녹색성장이 여성 살리기 해법"

아시아권 내 여성정책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이라는 성과를 남기고 제3차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가 막을 내렸다. 경제위기와 양성평등,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있어 여성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6월 25일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가 26일 막을 내렸다. 중국, 일본, 브루나이, 파키스탄, 인도 등 13개 참가국 장관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회의 마지막 날, 26개 항의 합의문(Seoul Joint Ministerial Communique)을 채택하고 이번 회의가 동아시아 지역의 양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진전을 이룬 대회였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동의했다.

참가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시아권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여성의 빈곤화와 성폭력 확대 같은 위기상황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여성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전 세계적 대응이 요구되는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재해에서도 아시아, 특히 여성의 피해가 크다는 성(性) 인지적 관점을 분명히 했다. 또 각종 녹색성장사업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유엔이 추진하는 글로벌 녹색뉴딜사업 같은 공공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도상국들의 경기부양과 친환경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이 밖에도 합의문에는 통치(Governance)에 있어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개선, 양성평등 사안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는 동아시아 지역 여성담당 각료들이 모여 아시아권 여성들의 지위 향상 및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성평등 메시지를 공유하는 자리다. 2006년 1차(일본), 2008년 2차(인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로 2백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와 주제별 분과회의, 고위급 원탁회의 등이 진행됐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은 경제적 권리에서 가장 소외되면서 경제위기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대상"이라고 전제한 후 "경제위기 극복에는 반드시 여성을 배려하는 정책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도 "여성실업은 가구소득 감소로 이어져 빈곤문제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부는 '경제행위자로서의 여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회의에서 일본 내각 남녀공동참획국 게이코 다케가와 국장은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고착화한 성 역할 관념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경제위기 극복 이후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성엔 더 가혹할수도

특히 개발도상국 여성장관들은 경제위기가 단지 빈곤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등 일반적인 여성인권에도 영향을 끼치고 여성을 폭력에 노출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대표 칸다 파비 잉 여성부 장관은 "캄보디아는 전체 수출의 70퍼센트를 의류산업이 차지하고, 의류산업 종사자의 80퍼센트가 여성인데 글로벌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공장에 다니던 여성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결국 성매매 등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의 영향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대표로 참석한 진추롱 중화전국부녀연합회 부주석도 "금융위기는 특히 사회복지 기능을 감소시켜 여성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증가시키고 교육, 의료, 보건 등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해 여성들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며 "여성의 창업과 취업뿐 아니라 정치 참여도 지원해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 장관은 "대한민국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일자

여성부

The 3rd East Asia Gender Equality Ministerial Meeting 24~26 June 2009, Seoul, Korea
제3차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을 배려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3차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 참석자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고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협조와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를 창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G-KOREA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전략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이번 각료회의의 분과 회의는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성 인지적 정보사회' '국가 통치와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에 대한 폭력' 등 4가지 주제로 열렸다.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분과회의에 참석한 김정숙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여성은 생명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모성집단이자 환경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체"라며 녹색성장전략에도 젠더(Gender)적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녹색 일자리 창출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직업을 창출해 노동유연성을 가져올 것이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 또한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 일자리가 노동시장 양성평등 구현"

한편 경제위기 여파가 동아시아에서는 여성 인신매매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스리 단티안와 인도네시아 여성권익부 차관은 "경제위기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가 극심해져 국제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신매매에 대한 전쟁을 소개했다. 스리 차관은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의 전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유엔 이주노동자협약과 함께 관련법 이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09 인신매매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최고 등급인 1등급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1등급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홍콩과 일본은 각각 2등급이다. 신혜수 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펼친 적극적인 인신매매 단속과 성매매 예방 교육 등을 소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여성정책을 널리 알리고, 아시아권 내 여성정책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다"

고위급 원탁회의에서는 지난 1, 2차 회의 이후 이뤄진 각국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MDGs ·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란 2000년에 유엔 주도로 8개의 목표와 18개 세부목표를 반영한 새 천년의 개발 목표를 정한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가 전 지구촌의 문제임을 천명한 것이다.

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여성정책을 널리 전파했고, 아시아권 내 여성정책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이번 회의의 의의를 밝혔다.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며, 2011년 제4차 회의는 캄보디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G 글 · 정지연 기자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수칙

신종인플루엔자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준수합시다!

가리고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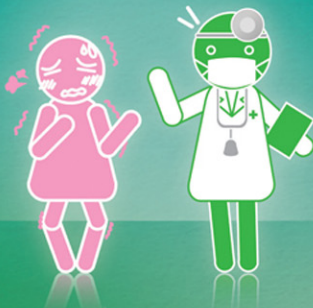
사용한 화장지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씻고

손은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자주 씻고

신고하고

37.8℃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선생님께 말하거나** 가까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검색 www.cdc.go.kr

대한민국 그린투어

기획특집

삶의 휴식이 되는 여행에도 녹색바람이 불고 있다. 친환경, 에코(Eco), 생태, 청정과 관련된 테마형 여행들을 사람들이 찾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는 녹색관광(Green Tourism)이다. 녹색관광은 사람과 자연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까지 가져올 수 있는 최상의 관광이다. **녹색관광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우리 산하(山河)의 소박한 모습을 즐길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나 녹색관광을 즐길 수 있다. 여름휴가철이다. 농어촌과 자연으로 새로운 발견을 향해 떠나보자.

일러스트 · 이우정

미래 신성장동력의 새 화두 '에코투어'

이젠 녹색으로 놀자

21세기 최고의 화두는 환경이다. 친환경 바람은 여행에도 불고 있다. 바야흐로 녹색관광시대다. 보고 즐기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까지 챙기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여행이 녹색관광이다.

동아DB

녹색관광이 우리 농촌에도 희망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전남 담양 대나무축제에서 대바구니로 물고기를 잡는 아이들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안동의 헛제삿밥으로 하는 점심식사, 안동댐 위에 놓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책교인 월영교 걸어보기, 별신굿 마당놀이판에서 어깨춤 추기….

초등학교 교사 박미아(36 · 서울 강동구 암사동) 씨 가족은 지난 5월 23, 24일 경북 안동 한옥마을 체험여행에서 이렇게 풍성한 추억을 한가득 안고 돌아왔다.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생 아들 형제를 둔 박 씨는 "아이들에게 전통 한옥체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마침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옥에서의 하룻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편하게 다녀왔다"고 말했다.

박 씨 가족은 그날 밤 한옥마을인 지례예술촌에서 단잠에 들었다. 다음 날은 한석봉 선생이 현판을 쓴 도산서원에 들러 조상들의 학문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가늠해보기도 하고, 한지체험장에서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닥종이 한지를 만들어보기도 했다.

박 씨는 "농어촌 체험여행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경험을 넓힐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이러한 체험여행을 많이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년 반 전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손성일(38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씨는 인터넷 카페 '아름다운 도보여행' 운영자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나라 곳곳을 걸어 여행하며 마을길, 농로, 숲길, 제방길 등 우리 땅의 숨은 아름다움을 발견해 카페 회원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7년 3월 문을 연 손 씨의 카페는 2008년 4월부터 공개 카페로 전환, 현재 회원수가 2천8백여 명에 이른다.

손 씨는 "도보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은 차로 쌩하고 지나면 보지 못하던 것들을 걸어가면서 마치 보물 발견하듯 하나씩 음미하는 재미"라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에 있는 도보여행 카페는 7백여 개에 이른다. 2001년쯤에도 몇 개 있었으나 최근 '느린 삶', '에코투어(Eco Tour)' 바람이 도보여행에 '영감'을 불어넣어 약 3년 전부터 도보여행 카페들이 불붙듯 늘었다.

누리꾼들 사이에 도보여행 전문가로 이름을 굳히며 외국으로도 도보여행을 다닌 손 씨는 "선진국의 경우도 국민소득 1만5천 달러가 넘어가면서 도보여행을 찾게 됐고, 삶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도보여행 프로그램과 코스들이 잘 발달돼 있다"고 전했다.

한국여행작가협회 허시명 회장은 "예전 여행이란 빨리, 많이 보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요즘 여행은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해 천천히 음미하고 한 곳을 거점 삼아 가까운 반경 이내 구역을 구석구석 보고 즐기면서 내 몸을 자연과 가까이 두는 체험여행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2002년을 '세계 생태관광의 해'로 정하면서 생태관광이 본격 도입된 이후 경북 울진과 제주도, 거제도 등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를 중심지로 한 동식물 관찰, 철새 탐조, 갯벌체험 등 프로그램이나 각 지역의 역사 및 문화해설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 에코투어가 붐을 이뤄왔다.

이처럼 환경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에코투어는 최근 한층 더 적극적인 개념의 '녹색관광(Green Tourism)'으로 발전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녹색관광이란 농어촌의 자연과 문화, 평온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을 말한다. 즉 농어촌에서 숙박을 하고 농사체험 등 프로그램을 통해 에코투어도 즐기면서 농촌지역의 농업외 소득을 증대시키는 농촌관광 전략이다.

"에코투어는 도시와 농촌 문화자원을 모두 풍부하게 한다"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일본인 저자 야마자키 미쓰히로의 〈녹색관광〉은 녹색관광에 대해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해 양쪽의 문화자원을 모두 풍부하게 한다"며 "녹색관광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작됐고 현재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농촌연구개발 전문 민간법인연구소인 '지역아카데미' 오현석 대표에 따르면 유럽의 농업 강국인 프랑스의 농촌관광이 대표적 사례다. 프랑스에서는 1950년대부터 관광지 주변 농촌 지역에서 노후대비용으로 민박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이후 국제 농산물시장의 공급과잉으로 농업이 위축되자 많은 농가들이 농업활동과 연계된 관광에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프랑스 관광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농촌관광은 전체 관광 매출의 20퍼센트에 달한다.

궁극적인 '녹색관광'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청정관광을 의미한다.
지구촌이 주목하는 '녹색성장'의 목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에 의한 생산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없는 녹색관광은 굴뚝산업을 대체할 미래 신성장산업이다.

사실 농촌관광은 '녹색'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녹색관광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궁극적인 '녹색관광'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청정관광을 의미한다. 지구촌이 주목하는 '녹색성장'의 목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에 의한 생산이다. 따라서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 특히 온실가스 없는 녹색관광은 굴뚝산업을 대체할 미래 신성장산업이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 김덕기 관광산업연구실장은 "녹색관광이란 궁극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관광"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광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분야별로 취약성 평가 등을 해야 하며, 이러한 선행과제에서 나온 데이터를 숙소나 여행코스 등 구체적인 관광상품 개발에 적용해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녹색관광을 실천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줌마기자' 경기 이천 부래미마을을 가다

미꾸라지 잡기·짚풀공예에 감자 캐기까지

하루 종일 있어도 심심할 틈 없겠네

환경과 건강을 위한 웰빙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연친화적인 농촌체험이 여가활용의 새로운 패턴으로 각광받고 있다. 농촌체험마을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경기 이천의 부래미마을을 찾아 연간 수만여 명이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부래미마을에 도착한 첫날은 미꾸라지 잡기와 황토염색체험을 하고, 도예체험장의 전시작품들을 감상했다(왼쪽부터).

6월 22일 오전 11시, 경기 이천으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날씨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주말 내내 비가 내려 먹구름이 걷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천 부래미마을에서 1박2일을 보내야 하는데 또 한바탕 비가 쏟아지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2시간 남짓 차를 타고 달리는 동안 날씨가 개기 시작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어 목적지인 부래미마을에 도착하자 그곳 하늘은 낯선 방문자를 반기듯 활짝 개어 있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커다란 문패가 낯선 방문객이 찾기 쉽도록 길을 친절히 안내해줬다. 문패에는 '정보화마을, 부래미'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부래미(富來美)라는 지명은 예부터 전해오는 마을 이름으로 '부자가 되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 앞에 정보화마을이라는 수식어가 달린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가 2004년 이 마을을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어귀에서부터 트럭 한 대쯤은 너끈히 다닐 수 있도록 잘 닦인 길을 따라 3, 4분쯤 올라가니 최신식으로 지은 다목적 체험관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넓은 식당과 음식체험관, 세미나실, 대강당 등과 함께 다양한 크기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9개의 호실로 된 숙박시설은 저마다 화장실과 테라스, 취사시설, 세면도구 등을 구비하고 있어 내부는 편리한 콘도 같고 외양은 아담한 펜션 같다.

그곳에 짐을 푼 뒤 다목적 체험관 내 사무실에서 마을 행정을 관리하는 최형두 사무장을 만났다. 최 사무장은 "전남 화순군에서 40여 명이 우리 마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오고 있다"며 "그분들이 도착하면 함께 움직이기로 하고 우선 미꾸라지 잡기 체험을 해보라"고 권했다. 마침 그곳에 미꾸라지 잡기 체험장을 운영하는 이상철 씨가 왔다. 미꾸라지 잡기 체험장은 다목적 체험관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었다.

논두렁 옆에 도랑을 만들어 미꾸라지와 붕어 등을 기르는 이 씨는 "체험객이 없을 땐 흰 그물을 쳐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황새가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다"면서 "미꾸라지 잡기는 아이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부래미마을은 농촌의 순수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체험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방치된 휴경지에서 아름다운 자연생태공원으로 변모한 습지.

들이 특히 좋아한다. 예전에는 우렁이 잡기를 진행했는데 요즘은 이것으로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청바지를 척척 걷어붙이고 맨발로 도랑에 들어갔다. 비 온 뒤라 물이 뿌옇게 흐려졌지만 이 씨에게 배운 대로 고기 모는 시늉을 하며 양손에 든 족대를 들어올리자 뭔가 팔딱거렸다. 기대했던 미꾸라지가 아니라 올챙이들이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같은 동작을 서너 차례 반복하다 보니 드디어 미꾸라지가 잡혔다. 손바닥만 한 붕어도 함께 낚는 행운이 따랐다.

도랑서 족대로 쿡쿡… 미꾸라지가 팔딱

자리를 옮겨 고추밭으로 갔다. 풋고추가 주렁주렁 달린 텃밭에 쪼그리고 앉아 바구니에 하나씩 따 담았다. 고추를 딸 땐 대롱 끝을 잡고 아래에서 위로 따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 따면 줄기가 같이 벗겨진다. 옆에 있는 상추밭에서 상추 따는 재미도 맛봤다. 상추는 줄기와 연결된 밑동을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따야 모양도 예쁘고 잘 따진다. 바구니에 수북한 상추와 풋고추를 보니 매콤달콤한 고추장과 김이 솔솔 나는 흰밥이 떠올랐다. 더위 먹은 한여름에 식욕을 돋우는 웰빙 식단이 아닌가.

상추를 따는 동안 전남 화순군 도암면에서 견학 온 어르신들이 도착했다. 어르신들은 대강당에서 한 시간가량 부래미마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강의가 끝난 뒤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다목적 체험관에서 어른 걸음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생태습지는 아이들 키만큼 자란 갈대와 이름 모를 풀들이 수북했다. 체험객이 구경하기 좋도록 나무다리도 놓여 있었다. 습지로 변해가는 휴경지를 '재활용'해 아름다운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한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는 산책로 인근에 있는 도예체험장을 찾았다. 도예체험은 도자기의 고장인 이천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다. 체험객들은 도예가인 우당 김영국 선생의 지도하에 '나만의 도예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 도예체험장이 새 단장

을 나눠줬다. 하트 모양이나 별 모양이 나오도록 손수건을 노끈으로 묶는 방법도 일러줬다. 저마다 멋진 모양을 기대하며 족구장이 있는 앞마당으로 모였다. 그곳에는 소금을 섞은 짙은 갈색의 황톳물이 여러 개의 대야에 담겨 있었다. 서너 명씩 조를 나눠 염색을 시작했다. 손수건을 황톳물에 푹 담갔다가 골고루 물이 들도록 빨래하듯 구석구석을 비볐다.

5분쯤 지나서 우 선생의 지시에 따라 손수건을 깨끗한 물에 헹군 뒤 노끈을 풀었다. 연한 갈색으로 변한 손수건에는 어느새 별과 원, 하트 모양이 새겨졌다. 어르신들은 저마다 손수건을 펄럭이며 염색된 색깔과 모양이 흡족한 듯 아이처럼 좋아했다.

황토염색은 원래 손수건을 햇볕에 말린 뒤 한 번 더 물에 헹궈 다림질을 해야 끝난다. 하지만 이 과정을 마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젖은 손수건을 비닐봉지에 넣고 나머지 절차는 집에서 하기로 했다. 우 선생은 "황토 손수건은 아이들 베갯잇이나 두건, 여성용 생리대로 사용하면 좋다"며 "손수건을 절대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황토염색체험이 끝나자 저녁식사 시간이 됐다. 어르신들과 함께 다목적 체험관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다. 이곳에서는 마을 부녀회원들이 솜씨를 발휘한 시골 밥상이 뷔페식으로 제공됐

호미로 땅을 파고 줄기를 들어올리자 감자가 주렁주렁 딸려 나왔다(왼쪽).
마을 이장에게서 짚풀로 달걀 꾸러미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을 하고 있어 도자기 만들기 체험은 불가능했지만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는 일도 색다른 즐거움이었다.

인절미 만들기 체험 장소에 있는 농기구 전시장에서도 새롭게 선보이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기구 전시장은 또 다른 '재활용' 사례. 각 농가에서 버리려고 하던 농기구들을 모아 정리함으로써 체험객들이 과거 농기구의 모습과 쓰임새를 알 수 있게 했다. 새롭게 꾸민 도예체험장과 농기구 전시장은 6월 26일 다시 문을 열었다.

황토염색으로 자연 담은 고운 손수건 완성

다목적 체험관 인근에 자리한 슬로푸드체험관에는 16대의 컴퓨터가 설치된 정보화교육실과 80~1백명을 수용하는 식당, 족구장 등이 있었다.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서 마련된 정보화교육실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한 컴퓨터 교육을 통해 마을 주민 대부분을 '컴도사'로 만들었다. 교육실 한 귀퉁이는 풍물놀이에 사용하는 장구, 북, 징 같은 농악기가 차지했다. 단체 관람객이 방문할 때마다 선보이는 풍물놀이는 이 마을의 또 다른 볼거리다.

오후 5시경, 슬로푸드체험관에서는 황토염색이 진행됐다. 황토염색체험은 염색 전문가인 우당심 선생이 이끌었다. 두건은 물론 상하의 모두 황토로 물들인 천연염색 의상을 입은 우 선생은 60, 70대 어르신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유머와 퀴즈를 섞어가며 황토염색 재료와 과정을 재미있게 설명했다.

"황토는 광물 염료예요. 산기슭에서 퍼다가 여러 차례 불순물을 걸러내 끈적끈적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염색이 잘 빠지지 않도록 소금을 잘 풀어뒀습니다."

우 선생은 염색 강의를 끝내고 손수건 한 장과 노끈 한 개씩

마을 이장과 함께 포도줄기를 단단히 엮고 있다.

다. 이천 쌀로 지은 밥도, 마을에서 재배한 채소와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구입한다는 백 퍼센트 국내산 재료로 만든 반찬들도 하나같이 꿀맛이었다.

저녁 8시경엔 숙박시설 앞마당에서 삼겹살 바비큐 파티가 벌어졌다. 전남 화순군에서 온 어르신들은 삼겹살을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할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털어놓는 그네들의 모습이 참으로 정겨웠다.

새끼줄 꼬아 직접 만든 달걀 꾸러미에 뿌듯

별들이 수놓은 시골의 밤하늘은 아름다웠다. 모자도 없이 땡볕을 쬐어 얼굴은 많이 탔지만 맑은 시골 공기를 마시며 온종일 돌아다녔더니 자리에 눕자마자 단잠이 쏟아졌다.

6월 23일, 둘째 날은 짚풀공예체험으로 아침을 열었다. 슬로푸드체험장을 끼고 50미터쯤 올라가자 검은 그물천막이 쳐진 짚풀공예체험장이 보였다. 이곳에서는 주로 달걀 꾸러미 만들기, 새끼 꼬기 체험이 진행된다. 이날 짚풀공예 강의를 맡은 이기열 이장은 "우리 마을의 짚풀공예는 수준급"이라며 "전국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한 적도 있다"고 자랑했다.

이장 어르신은 미리 삶아온 달걀 5개와 체험장에서 말려둔 짚풀을 한 움큼 내밀었다. 달걀 꾸러미 만드는 재료들이다. 달걀 꾸러미 만드는 법을 차근차근 일러주던 그는 "원래는 날달걀로 만들어야 하지만 깨지기 십상이라 늘 삶아서 준비한다. 다 만든 뒤 짚풀 끝을 다듬어야 상품가치가 있다"며 시범을 보였다. 처음에는 모양이 엉성했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자 제법 맵시 있는 달걀 꾸러미가 완성됐다.

다시 자리를 옮겨 이장 어르신네 배밭에서 배를 봉지로 씌우는 일을 도왔다. 봉지는 과일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봉지 안을 크게 벌리고 배에 씌워 끝을 오므려 묶으면 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복숭아에도 봉지를 씌웠다. 전날 염색한 황토 손수건을 두건처럼 머리에 두르니 땀이 흘러내리지 않고 햇볕이 덜 따가워 좋았다.

이장 어르신은 감자도 직접 캐보라며 호미를 건네줬다. 마침 배밭 옆에는 한 줄로 길게 늘어선 감자밭이 있었다. 감자 캐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왼손으로 감자 줄기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에 든 호미로 흙을 퍼내면서 왼손을 잡아당기면 주렁주렁 감자가 딸려 나왔다. 하지만 호미를 잘못 찍으면 감자까지 상했다. 적당한 요령과 힘이 필요한 체험이었다.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서 마련된 정보화교육실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한 컴퓨터 교육을 통해 마을 주민 대부분을 '컴도사'로 만들었다. 단체 관람객이 방문할 때마다 선보이는 풍물놀이는 이 마을의 또 다른 볼거리다.

서툰 솜씨로 캔 감자가 플라스틱 대야에 그득했다. 대야를 들어보니 꽤 무거웠다. 이장 내외는 직접 캔 감자는 가져갈 수 있도록 봉지에 담아줬다. 푸근한 시골 인심이다.

아쉽지만 부래미마을에서의 농촌체험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했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마을 주민들의 넉넉하고 따뜻한 정을 느끼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8월부터 이곳에서는 복숭아 수확, 포도 따기, 고구마 캐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쪽 어깨에 달걀 꾸러미를 메고 한 손엔 감자 봉지를 들고 마을을 빠져나오면서 그때는 가족과 함께 이곳을 다시 찾으리라 다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부래미마을 성공 비결은?

다양한 농촌체험 개발 똘똘 뭉친 마을 주민의 힘

부래미마을은 35가구, 7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다. 하지만 작다고 깔보면 안 된다. 이곳은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간 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도 연간 5만여 명에 이른다. 딸기 따기(3~5월), 포도 따기(8, 9월), 배 따기(10월) 등 인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달에는 월 5천여 명이 다녀가고, 비수기인 6, 7월과 11~2월에도 월 1천여 명이 찾는다고 한다.

방문객 중에는 농촌체험을 위한 관광객뿐 아니라 이곳의 노하우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른 마을에서 견학 오는 단체손님도 상당수다. 그래서 부래미마을은 비수기에도 바쁘지 않은 날이 없다.

2002년 12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부래미마을은 이듬해 홈페이지 개설을 시작으로 다각적인 사업을 진행했다. 2004년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의 전신)의 '정보화마을', 농협 '팜스테이마을', 경기도 '슬로푸드마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마을종합개발' 등의 사업에 참여한 것.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무장도 따로 두었다. 또 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도왔다.

덕분에 농촌체험을 시작한 2003년에는 체험객 3천명에 매출 5천만원에 그쳤지만 불과 5년 만에 규모가 10배 이상 급성장했다.

한편 체험비용은 세 가지 프로그램을 묶어 1인당 1만5천~2만원 정도다. 숙박시설은 다목적 체험관 외에도 기존의 민박용 객실 7실이 있으며 숙박비는 4인 기준 4만원이다.

푸른 논 너머에 다목적 체험관이 보인다.

문의 및 홈페이지 031-643-0817, 011-3454-5486(최형두 사무장), www.buraemi.com

찾아가는 길 중부고속도로 일죽나들목→38번 국도 장호원, 원주 방향으로 8킬로미터→율면 행죽 방향(우회도로)→333번 지방도 장호원, 행죽 방향으로 1.5킬로미터→율면 방향 우회전→석산 1리 좌회전→부래미마을

1 대나무와 소곤소곤 정다운 숲
경남 사천시 비봉내마을

가지런한 장독대와 대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진 울창한 대숲, 그 빈자리를 가득 메운 푸른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마을이다. 그 중에서 최고의 자랑거리는 대숲이다. 대나무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듣는 구수한 생태해설은 필수 체험코스. 체험 프로그램들과 특산물도 대나무와 관련이 있다. 대나무 피리 만들기, 대나무 전통놀이, 대나무 수액으로 만든 고추장, 대나무 잎으로 만든 산죽차 등이 그것. 경남 남해안에 위치한 이 마을에서는 바다와 맞닿은 지리적 특성 덕에 허수아비 만들기, 경운기 타기 등의 농촌체험과 함께 소라 잡기, 굴 따기 같은 어촌체험도 즐길 수 있다.

홈페이지 www.beebong.co.kr

문의 055-852-7055, 011-857-4000(강태욱 대표)

잠자리 마을 공동숙소나 인근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다. 여름 캠프는 당일 2만원, 1박 2일은 3만5천~6만5천원(6세 미만 무료). 체험 프로그램은 2주 전에 마을 홈페이지에 일정을 공지한다. 마을에서는 인터넷으로 예약한 후 방문하고, 단체관광은 별도로 문의하도록 권하고 있다.

찾아가는 길

경부(중부)고속도로→대전통영고속도로→진주→남해고속도로→곤양나들목→다솔사 방향 1킬로미터 지점이 비봉내마을

2 자연 수호하는 청정 두메산골
강원 춘천시 물안마을

오봉산과 소양호로 둘러싸여 있으며 마을을 가로지르는 물안계곡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깨끗하게 보존돼 있다. 지난 10년 동안 자연휴식년제를 올곧게 지켜온 결과다. 전체 25가구 중 20가구가 귀농한 이 마을 사람들은 모든 농작물을 친환경으로 재배한다. 친환경농법은 고스란히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우렁이 방사, 메뚜기 잡기, 산나물 캐기 등이 진행된다. 천혜의 청정환경을 이용한 토종물고기 잡기, 토종벌꿀 생태 관찰, 야생화 투어 등 생태체험도 이 마을의 자랑거리다.

친환경농산물로 두부, 조청 만들기나 시골밥상 차리기 등 음식체험도 이뤄진다. 산악자전거 코스와 계곡을 따라 펼쳐진 하이킹코스, 산책로, 낚시터 등에서 레저도 즐길 수 있다.

홈페이지 www.greentourings.or.kr

문의 033-244-0576, 011-9959-0576(신수현 이장)

잠자리 마을회관, 통나무집, 황토집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을회관 민박은 큰방 8만원, 작은방 4만원이며 전통한옥 황토집은 하루 대여료가 20만원.

찾아가는 길

중앙고속도로(원주)→구봉산전망대(양구 청평사 · 46번 국도)→배후령→추곡터널→추곡초교→농협 하나로마트→부귀리 물안마을

조영철 기자

우수 농어촌체험마을 8選

올 바캉스는 농촌체험 어떠세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 8월은 여름방학과 바캉스 시즌이다. 아직 피서지를 정하지 못했다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갖춘 농어촌마을에서 알차고 경제적인 피서를 즐기는 건 어떨까.

3 모험과 전통문화의 어울림 강원 인제군 냇강마을

앞으로는 맑은 소양강이, 뒤로는 울창한 대암산이 자리하고 있다. 대암산은 희귀 동식물의 자생지로 유명하다. 특히 대암산 계곡에는 크고 작은 폭포와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냇강마을에서는 여느 농촌과는 차별화된 뗏목 타기체험이 가능하다. 마을의 전통문화인 뗏목을 복원해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뗏목체험은 숨통이 트이는 시원한 풍광과 짜릿한 모험을 즐기기에 안성맞춤. 여러 명이 한팀을 이뤄 뗏목을 만들고 직접 노를 저어 흐르는 소양강물과 하나가 되는 체험이다.

통나무와 나룻배 타기체험도 할 수 있고 청정 1급수인 냇강에 사는 다슬기, 어름치, 쉬리 등 정겨운 토종 민물고기도 관찰할 수 있다.

홈페이지 wolhakri.go2vil.org
문의 011-9219-7956, 011-9936-1600(박수홍 이장)
잠자리 마을 내 펜션과 노인회관을 이용해 최대 8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가족 체험객은 농가 민박도 가능. 하루 1인 기준으로 비용은 1만5천원 정도. 식사는 한 끼에 5천원.
찾아가는 길
서울→양평(6번 국도)→인제→북면(453번 지방도)→냇강마을
부산→대구→중앙고속도로→홍천→인제

4 이곳의 약초엔 특별한 것이 있다 충북 제천시 산야초마을

충주댐 건설로 내몰린 수몰민들이 모여 다시 일으킨 마을이다. 이 마을의 약초는 약효가 좋기로 소문나 있다. 금수산의 맑은 물이 약효를 돋우고 낮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 약초는 산야초 마을을 찾는 사람들의 체험 재료로도 쓰인다.

잘 말려둔 약초에서 뽑아낸 색으로 천연염색을 하기도 하고, 약초를 잘게 썰어 향기 나는 약초주머니나 약초비누를 만들기도 한다. 마을 주민들은 약초를 가공해 다양한 상품도 만들어낸다. 당귀인절미, 당귀두부, 승검초떡 만들기 같은 약초를 활용한 음식체험은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어린이 체험객에겐 황토를 온몸에 바르는 황토팩과 당귀잎 가루와 찹쌀을 버무려 떡메로 치는 떡메치기가 인기다.

홈페이지 sanyacho.go2vil.org
문의 043-651-1357, 011-716-1201(김태권 위원장)
잠자리 마을 민박 또는 산야초체험관 황토방에서 숙박할 수 있다. 마을 홈페이지에서 민박 예약 가능. 수용 인원은 4~10명, 1인 기준 숙박비는 1만원.
찾아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신갈→영동고속도로→남원주(만종나들목)→중앙고속도로 남제천나들목 청풍방향→청풍랜드→청풍대교 건너기 전 능강계곡 방향 좌회전→능강마을→약초생활건강(산야초마을)

1 강원 춘천시 물안마을은 10년 동안 자연휴식년제를 지켜 청정환경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2 강원 인제군 냇강마을에서는 뗏목과 나룻배 타기체험을 할 수 있다.
3 경남 사천시 비봉내마을을 찾은 어린이들이 대나무 피리를 만들고 있다.
4 충북 제천시 산야초마을에서 아이들이 온몸에 황토를 바르는 체험을 즐기고 있다.

1

5 은은한 달빛 아래 추억과 정이 듬뿍~
충남 서천군 달고개모시마을

까다롭다는 한산 모시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 마을은 모시문화 기능제에 출전해 13번이나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깻잎처럼 생긴 모시풀에서 가느다란 실을 뽑는 체험은 물론 모시에 천연염색 하기, 모시로 공예품 만들기, 모시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모시를 먹을 수 있을까 의아하겠지만 모시는 우유보다 칼슘이 더 많이 든 건강식품이라고 한다.

입에서 살살 녹는 모시로 만든 한과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배와 배즙, 양송이버섯과 함께 이 마을의 대표적 특산물로 꼽힌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은 모시 제기와 모시 휴대전화 줄 만들기. 어머니들은 담백한 맛이 일품인 모시떡, 모시차, 모시부침개, 모시빵 만드는 재미에 먹는 즐거움까지 더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홈페이지 dalmosi.go2vil.org
문의 011-9802-1762(양만규 위원장), 011-428-3175(양생규 총무)
잠자리 30명 내외의 단체는 체험관이나 마을회관에서 3명, 6명, 15명 단위로 민박이 가능하다. 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약할 수 있다.
찾아가는 길
서해안고속도로 서천나들목→서천읍내에서 602번 지방도(한산 방면)→한산면에서 신성리 방향 우회전→약 2킬로미터 직진 후 다리에서 월산리 방향 우회전→월산리 달고개모시마을

6 제주의 푸른 바다를 마당 삼은 곳
제주 서귀포시 혼인지마을

한라산이 바다로 내달리다 멈춰버린 곳 같은 성산 일출봉은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다. 왕관처럼 솟아오른 오름의 이국적 풍광도 일품이다. 그 해안을 따라가면 혼인지마을이 나온다. 혼인지라는 지명은 탐라의 시조인 삼신산이 혼례를 치른 곳이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마을에는 두 개의 체험공간이 마련돼 있다. 마을에 자생하는 춘란을 빈 소라껍데기에 옮기는 분재체험과 장대 끝에 낚싯줄을 매달고 바늘을 걸어 하는 바다낚시체험이다. 바다낚시는 장소만 잘 고르면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해 바위에 갇힌 작은 물고기를 수도 없이 낚을 수 있다. 마을 앞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용천수로 몸과 마음을 씻고, 수생식물을 관찰하며 올챙이를 잡아보는 일은 놓치기 아까운 체험거리다.

홈페이지 www.honinji.co.kr
문의 064-784-8766, 011-698-8805(현광렬 위원장)
잠자리 마을에서 지어 운영하는 제주전통농가 1개 동과 펜션 이앤오 하임이 있다.
찾아가는 길
제주사라봉오거리→동부순환도로로 우회전 진입→국립제주박물관→세화성산해안도로→해녀박물관→온평사거리 좌회전→온평리 혼인지마을(제주국제공항 출발 1시간 소요)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1 충남 서천군 달고개모시마을에서는 모시풀에서 실을 뽑는 체험이 가능하다.
2 제주 서귀포시 혼인지마을은 해안선의 아름다운 풍광이 일품이다.
3 옛 전설과 민간신앙이 어우러진 전남 강진군 청자골달마지마을.
4 전북 남원시 춘향허브마을에는 대규모 허브단지가 있어 허브향이 가득하다.

7 구석구석 배인 전설 보따리 한아름 전남 강진군 청자골달마지마을

옛 전설과 흔적, 민간신앙이 어우러진 이 마을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곳곳에 배어 있다. 마을 뒤에 위치한 '월출산의 이웃사촌' 월각산에는 골짜기마다 영험함이 깃든 민간신앙의 자취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을 어르신들께 듣는 재미있는 전설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체험 프로그램은 종류도 많고 아기자기하다. 무엇보다 농촌 체험 자체에 충실하며 따라하기 쉽다. 체험객들은 쥐콩나물 기르기, 새송이버섯 수확, 굴렁쇠 굴리기, 생채 만들기, 황토염색 등 26가지 체험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콩나물은 집에 가지고 가서 3, 4일 두면 쑥쑥 자란다. 냇가에선 물놀이를 하며 미꾸라지도 잡을 수 있다. 저녁엔 장작불을 피워놓고 주민들과 둘러앉아 고구마도 구워먹고, 게임도 즐기는 캠프파이어가 진행된다.

홈페이지 dalmagi.go2vil.org
문의 061-433-2476, 011-666-2476(이윤배 위원장)
잠자리 마을 내에 다양한 민박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2인 1실 기준으로 성수기(4~10월)에는 3만원, 비수기(11~3월)엔 2만원.
찾아가는 길
서해안고속도로→목포나들목→1번 국도→영산강 하구둑→(부산방면 출발 시)2번 국도→성전→13번 국도→영암 방향→성전면 송월리

8 춘향이 사랑가에 취하고 허브향에 취하고 전북 남원시 춘향허브마을

남원은 〈춘향전〉의 문학적 향기와 동편제 판소리 가락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예향이다. 지리산 바래봉 서쪽 산자락에 자리한 춘향허브마을은 남원의 고결한 예향정신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한 체험마을이다. 마을에는 무려 30헥타아르에 이르는 대규모 허브단지가 있어 곳곳에 허브 향이 가득하다. 체험 프로그램도 가지가지다.

허브가 자라는 과정 관찰은 물론 허브를 이용한 비누, 양초, 베개 만들기는 기본. 메주 담그기, 허브김치 만들기, 도토리묵 만들기도 가능하다. 나물비빔밥, 흑돼지구이, 도토리묵5합 등 옛 맛 즐기기도 놓칠 수 없는 체험거리다. 특히 여름에는 파프리카를 직접 수확하고,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홈페이지 chunhyang.go2vil.org
문의 063-626-2111, 018-287-8814(박상미 사무장)
잠자리 제2허브체험장은 50여 명의 단체 숙박이 가능하다. 펜션은 모두 3개동(6.5평형이 2개동, 8평형이 1개동).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민박에서도 숙박이 가능하며 수용 인원은 4~10명 정도.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찾아가는 길
전주나들목→17번국도→임실→남원→운봉읍→춘향허브마을 G

글 · 김지영 기자

4대강 따라 1박2일 "여행을 떠나요~♬"

올여름에는 4대강 강변을 따라 가족여행을 떠나보자. 물줄기마다 흐르는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맑아지고 몸은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찰 것이다. 월간 〈여행스케치〉가 최근 펴낸 4대강 문화관광 안내 책자에서 소개한 '꼭 가볼 만한 4대강별 여행지'들을 강물을 따라 훑었다.

한강 강 따라 이어진 볼거리 종합선물세트

4대강 에코프렌즈 황보고

한강이 지나는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과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동쪽 끝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만 달려도 종합영화촬영소, 각종 갤러리 등 예술과 낭만이 가득한 세계가 펼쳐진다.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하나의 물이 되는 곳이다. 4백년이 넘은 느티나무는 이곳의 명물. 강물과 어우러지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자체가 예술이 된다. 주변에 다산 정약용 유적지와 수생식물 생태공원인 세미원이 있다.

중미산천문대는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어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밤하늘의 별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매주 목~일요일에 천문 영상교육과 8인치 굴절망원경으로 행성과 성운을 관찰하는 천체관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천년사찰 신륵사 앞에서 노을과 어우러지는 남한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여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또한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살아 숨쉬는 한민족의 예술혼이 깃든 도자기의 멋도 함께 느낄 수 있다. 이 밖에도 아름다운 해여림식물원, 목아박물관, 세계생활도자관 등 볼거리가 많다.

충주와 단양은 한강의 매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도시다. 남한강을 따라 이어져 있는 많은 유적과 볼거리들이 종합선물세트처럼 알차다. 특히 충주댐 건설로 조성된 충주호 일대는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에 있는 중앙탑조각공원은 '문화재와 호반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1992년 조성된 야외조각공원이다. 이곳의 백미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석탑인 국보 제6호 중앙탑. 정식 명칭은 탑평리 7층 석탑이지만 통일신라 당시 중앙에 세워진 탑이라 하여 중앙탑으로 불린다.

탄금대는 신라 진흥왕 때 악성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한 곳이다. 산 아래로 남한강이 흐르는 가운데 기암절벽과 송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뽐낸다. 남한강 줄기는 벼랑에 자리잡은 열두대에서 가장 잘 보인다. 육각정과 우륵추모비 등을 감

충주 중앙탑조각공원은 강의 아름다움과 문화재, 예술이 어우러진 관광지다.

상할 수 있다.

청풍나루와 신단양 장회나루터를 오가는 유람선을 타면 옥순봉, 구담봉, 단양팔경을 두루 구경할 수 있다. 단, 승선 인원이 어느 정도 차야 하고 배 뜨는 시간이 매월 달라지므로 미리 문의하고 예약해야 한다.

청풍대교를 건너면 번지점프와 암벽등반을 즐길 수 있는 청풍랜드가 나온다. 번지점프는 국내 최고 높이를 자랑하고, 암벽등반은 나이 어린 사람들도 즐길 수 있어 가족여행지로 인기다. 청풍랜드 앞에는 수경분수까지 있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단양팔경을 상징하는 도담삼봉은 강물 한가운데 높이 6미터의 늠름한 장군봉(남편봉)을 중심으로 총 3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져 있다. 중앙에 오래된 정자가 세워져 있어 운치를 더한다. 조선시대 개국공신인 정도전 등 풍류를 아는 문인들의 발길이 잦았던 곳이다. 충주호에서 36번 도로를 타고 30여 분 단양읍내로 가면 있다.

천제단부터 단종애사까지 역사도 따라 흘러

고구려 평원왕의 사위인 온달이 신라군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 쌓았고 이곳에서 전사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온달산성은 트레킹하는 기분으로 오를 수 있는 산성이다. 길이 9백22미터, 높이 3미터의 반월형 석성으로 원형이 잘 보존된 편이다.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성산의 정상 부근에 돌로 쌓았는데 그 정교함에 놀라게 된다. 도담삼봉에서 59번 도로를 타고 영월 방면으로 10여 분 가면 나온다.

예부터 강원도 남부와 경상도, 충청도를 잇는 중요한 길목이던 영월은 천혜의 비경과 조선 단종의 넋이 서린 곳이다. 영월의 동강과 서강은 칼 같은 병풍을 두른 듯한 고봉들 사이로 굽이쳐 흐르며 물길 닿는 곳마다 신비로운 경치를 빚고 있다.

평창에서 이어지는 서강과 정선에서 이어지는 동강은 영월읍에서 합류해 남한강을 이룬다. 동강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원시 자연의 생태를 그대로 간직해 자연의 신비감을 더해준다. 영월에서 단양까지 이어진 도로는 남한강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다.

신동읍 제장마을에서 출발하는 동강 래프팅 구간은 미국의 그랜드캐니언, 중국의 계림과 비교할 만큼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어름치, 쉬리 등 1급수에 서식하는 물고기도 볼 수 있다. 해마다 7월이면 동강축제가 열린다. 뗏목체험,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등 체험행사를 비롯해 사물놀이, 콘서트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폐교에 만들어 놓은 곤충박물관엔 영월의 희귀곤충들이 전시돼 있다. 곤충 표본 3천여 점과 전문도서 2백여 점을 전시해 청소년들이 쉽게 희귀곤충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강 끝에 자리잡은 선암마을은 마을 앞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를 꼭 빼닮은 한반도 지형으로 유명하다.

영월과 인접한 정선 또한 청정 자연을 자랑한다. 짙푸른 숲과 강물이 빚어내는 비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세상 시름이 다 잊힌다. 양수인 송천과 음수인 골지천이 만나 '어우러진다'는 뜻의 아우라지는 오래전 한양으로 목재를 운반하는 뗏목이 출발하던 곳이다. 구절리에서 아우라지까지 7.2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는 레일바이크를 타보자.

남한강 발원지인 검룡소, 낙조와 일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태백산도 각광받는 여행지다. 태백산에는 단군조선시대 구을 임금이 쌓았다는 천제단과 천제가 있다. 석화 등의 생성물이 즐비한 자연 석회동굴인 용연동굴도 둘러볼 만한 곳이다.

청풍호 유람선(위). 영월 뗏목을 재현하고 있다.

여주군 관광 안내 www.yj21.net 031-887-2868
충주시 관광 안내 tour.cj100.net 043-850-6723
단양군 관광 안내 tour.dy21.net 043-420-3544
제천시 관광 안내 www.okjc.net/tour 043-641-5140
영월군 관광 안내 www.ywtour.com 033-370-2542
정선군 관광 안내 www.ariaritour.com 033-560-2365
수생식물 생태공원 세미원 www.semiwon.or.kr 031-775-1834
중미산천문대 www.astrocafe.co.kr 031-771-0306
청풍나루터 www.chungjuho.com 043-647-4566
영월 곤충박물관 033-374-5888
아우라지 레일바이크 www.ktx21.com 033-563-8787

낙동강 고즈넉한 전통의 향기를 좇아서

4대강 에코프렌즈
어르미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의 함백산 너덜샘에서 발원해 경상북도와 남도를 두루 돌아 부산 다대포로 흐르는 1천3백 리의 강이다. 한반도에서는 압록강 다음으로 길다. 중상류는 풀잎에 매달린 이슬방울 같은 감입곡류(산지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 지형이 많고, 하류로 오면서 사구와 습지를 형성해 철새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낙동강 상류 지역은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유구한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곳이다. 첩첩이 산으로 둘러싸여 접근이 쉽지 않은 봉화,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육지이면서 섬을 품은 영주와 예천 등 저마다 확실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강은 봉화에서 제법 면모를 갖추기 시작해 안동에 이르러 거대한 호수를 이루고, 영주와 예천을 지나면서 여러 지류를 받아들여 몸집을 키운다.

봉화는 사진작가들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즐겨 찾을 정도로 풍광이 빼어난 곳이다. 특히 닭실마을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의 명당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빼어난 지형을 자랑한다. 고택이 많아 고즈넉한 전통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거북 모양의 너럭바위 위에 정자가 서 있고 연못이 정자를 감싸는 형국의 청암정은 영화 〈바람의 화원〉 포스터 촬영지로 유명하다.

조선 마지막 주막 '삼강주막' 들러 막걸리 한 사발

태백시로 향하는 35번 국도에서 매호유원지를 지나 경사를 오르다 보면 오른쪽에 범바위전망대가 나온다. 낙동강이 황우산을 휘감아 흐르는 풍경이 한 폭의 산수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절경이다. 이 밖에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마을을 끼고 흐르는 석천계곡과 국내에서 가장 높고 긴 현수교 '하늘다리', 서벽리 금강소나무숲, 청량사도 가볼 만한 곳이다.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는 예천 회룡포.

낙동강과 내성천, 금천이 하나로 모이는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에 있는 '조선의 마지막 주막' 삼강주막도 꼭 들러야 할 곳이다. 뱃사공과 보부상들이 피로를 풀던 곳으로 지금도 영업을 한다. 주막 건물 뒤에 있는 수령 약 5백년 된 회화나무가 옛 정취를 더한다.

문경과 상주는 동에서 서로 흐르던 낙동강이 남으로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다. 낙동강이라는 이름이 유래된 곳이기도 하다. 낙동강이 빚어낸 수많은 절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합천호의 물안개와 안동 하회마을(오른쪽).

낙동강은 전자산업도시 구미를 관통한 뒤 성주와 대구의 접경으로 흘러든다. 구미는 거대한 산업단지 때문에 여행지로는 도외시돼 왔지만, 자연보호운동 최초 발상지인 금오산을 비롯해 강변을 따라 볼거리가 많다.

해평면 일선리 문화재마을은 살림집과 정자 등 조선시대 영남북부지역 양반가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재들이 많다. 낙산리 고분군, 신라 불교 최초 도래지인 도리사, 천생산 자연휴양림도 매력적인 여행지다.

낙동강은 하류로 내려오면서 강폭이 넓어지고 경사가 완만해진다. 그 결과 유속이 느려지고, 홍수로 인한 토사가 퇴적하면서 생긴 평야(범람원)와 배후습지가 발달했다. 이런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창녕 우포늪이다. 1억4천만년 전 생긴 우포늪으로 미뤄 낙동강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권역은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탐방하기에 적당한 곳이 많다. 물안개가 운치 있게 피어나는 합천호는 말할 것도 없고, 오도산은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멋진 운해를 담기 위해 관광객들이 카메라를 들고 모여든다. 고령의 교동 고분군도 걷기 좋은 코스로 개발됐다.

상주 경천대 인근에 낙동마을이 있고 이곳에 나루가 존재했다. 뱃길을 이용한 영남지방의 인적, 물적 자원 운송의 종착지였던 나루다.

여기 모인 물건들은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가장 짧은 고갯길인 문경새재를 넘어 충주 가흥창에 재집결된 뒤 다시 한강을 타고 한양으로 운반됐다. 문경새재는 옛길이 됐지만 지금도 긴 생명력을 유지하며 사랑받고 있다.

하류 지역 당도하면 '천천히 걷기' 제격

문경의 진남교반은 경북팔경의 제1경으로 꼽힌다. 기암괴석과 깎아지른 듯한 층암절벽이 이어지고 강 위로 3개의 교량이 나란히 놓여 있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이룬다. 낙동강 지류인 가은천과 조령천이 영강에 합류했다가 돌아나가는 지점으로 아름드리 노송이 우거진 숲 앞으로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여름철 휴양지로 제격이다. 진남교반을 철로자전거로 둘러보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다.

북쪽 고모산에는 길이 1.6킬로미터에 이르는 고모산성이 있다. 삼국시대에 쌓은 성이라고 하며, 천하장사 고모노구와 마고노구가 경쟁해 하룻밤 만에 쌓았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주변에 오정산, 불정자연휴양림, 선유동계곡, 용추계곡 등이 있다.

밀양에 이르면 낙동강이 마을의 한가운데를 흐르며 너른 평야에 물을 댄다. 낙동강이 빚은 풍요와 그 속에서 피어난 흥겨움이 여유롭고 능청스런 '밀양아리랑'을 탄생시켰다.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에 있는 기회송림(산외긴늪유원지)에는 밀양강 북천수를 따라 폭 2백 미터, 1.5킬로미터의 길이에 수령 1백20년 된 소나무 9천5백여 그루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숲에서는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강에서는 수영과 뱃놀이를 즐길 수 있다. 주변에 빈지소유원지, 얼음골, 영남루, 용두원유원지, 표충사, 만어사, 언양 자수정동굴나라 등의 관광지가 있다.

낙동강 최하류 권역인 이 일대는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좋다. 밀양에서 통도사가 있는 양산까지 강물과 함께 1022번 지방도가 달린다. 양산 원동으로 넘어가면서 산 중턱을 끼고 돌기도 하는데,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낙동강이 장쾌하다.

봉화군 관광 안내 tour.bonghwa.go.kr 054-673-5800
예천군 관광 안내 tour.ycg.kr 054-650-6395
문경시 관광 안내 tour.gbmg.go.kr 054-550-6394
철로자전거 www.mgtpcr.or.kr 054-553-8300
구미시 관광 안내 tour.gumi.go.kr 054-450-6062
합천군 관광 안내 culture.hc.go.kr 055-930-4667
밀양시 관광 안내 tour.miryang.go.kr 055-359-5644

금강 찬란한 6백년… 백제의 숨결을 찾아서

4대강 에코프렌즈
까시

금강은 상류에 대전분지 · 청주분지, 중류에 호서평야, 하류에 전북평야가 펼쳐져 전국 최고의 쌀 생산지대를 이룬다. 또한 호남평야의 젖줄로 백제시대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일본에 백제문화를 전파하는 '컬처로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금강은 장수를 거쳐 용담호에서 호수를 이룬 뒤 무주와 영동을 지나며 무주구천동과 양산팔경의 절경을 만들어낸다. 영동 양산팔경은 금강 상류 연안에 자리한 송호국민관광지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여덟 경승지를 말한다. 무주 반딧불축제는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반딧불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여름 열린다. 템플스테이, 남대천 송어잡이, 반딧불 어울림 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금산군 적벽강도 빼놓을 수 없는 절경이다. 바위산이 붉은색이란 데서 유래된 적벽은 30미터가 넘는 장엄한 절벽인데, 가을에는 불붙는 듯한 단풍이 강물에 투영돼 절경을 이룬다. 적벽 아래 흐르는 금강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모래사장이 길게 깔려 있어 운치를 더한다.

옥천의 명물은 올갱이국. 올갱이는 민물고둥의 충청도 사투리로 다슬기라고도 한다. 익힌 속 알맹이를 빼놓고 푸르스름한 국물에 된장을 듬뿍 풀어 고추장과 다진 마늘로 양념한 뒤 부추를 썰어 넣는다. 옥천읍 금구리에 올갱이국 맛집들이 있다. 장령산 정상에 있는 옥천전망대도 둘러볼 만한 곳이다.

경부고속국도 신탄진나들목에서 3번 국도를 타고 달리다 신탄진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대청호가 나온다. 571번 도로는 대청호의 아름다운 호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국도다. 고요한 숲길을 따라가다 만나는 호수 풍경은 그림 속 세상 같다.

문의문화재단지는 대청댐 건설로 수몰된 4개 군 11개 면에 있던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놓았다. 단지 안에는 문의면 가호리에 있던 고인돌을 비롯해 옛 문의현 객사인 문산관, 충북문화재로 지정된 민가와 대장간 등을 복원했다. 문화유물전시관과 대청호미술관도 둘러볼 만하다.

공주 공산성 올라 탁 트인 금강을 한눈에

대청호에 잠시 모였던 강물은 대청댐을 지나 연기군과 공주로 접어들어 서쪽으로 흐른다. 이 일대는 과거 백제문화가 꽃피던 곳이다. 백제 수도였던 공주에는 무령왕릉과 공산성 등 옛 유물과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또한 참게나 붕어 등 민물고기가 많이 잡혀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다. 96번 지방도와 32번 국도를 번갈아 타면 금강과 나란히 달리며 여행할 수 있다.

예부터 금강변 곳곳에 나루가 형성됐고 빼어난 경치 때문에 정자가 지어졌다. 이를 '오강팔정(五江八亭)'이라고 하는데, 연기군 금남면 영곡리 금강변에 있는 한림정(翰林亭)도 그중 하나로 아름다운 금강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예부터 금강의 빼어난 경치 때문에 정자가 많이 지어졌다. 공주 공산성 앞을 흐르는 금강 풍경.

경주 안압지보다 먼저 만들어진 부여 궁남지(왼쪽).
백마강을 운항하는 유람선.

공주 공산성은 백제시대의 중요한 산성이었다. 원래 이름은 웅진성이었으나 고려시대 이후 공산성으로 불렸다. 성벽 안에는 7, 8미터의 호(壕)와 우물터, 광복루, 쌍수정, 연못터 등이 남아 있다. 백제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 공주 여행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다. 산성에서 금강이 내려다보인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백제문화의 핵심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무령왕릉실에는 왕과 왕비의 지석, 오수전 꾸러미, 목관재 등 2천9백여 점의 유물이 한자리에 전시돼 있다. 1층에는 선사시대 돌도끼, 청동기시대의 칼 등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

금강자연휴양림은 산림박물관, 금강수목원, 잔디축구장 등이 모두 모여 있어 둘러보는 데 하루가 모자랄 정도다. 산림박물관과 식물원은 자연학습을 겸할 수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의 나들이 코스로 좋다. 휴양림에선 숙박도 가능하다.

절개 서린 낙화암서 3천 궁녀 넋 기리고

금강은 부여로 흘러들면서 '백마강'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다.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에는 한때 번성했던 백제의 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다. 부소산성은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백제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곳이다. 백제 여인들의 절개가 서린 낙화암을 비롯해 고란사, 군창지 등의 유적이 남아 있다. 산책로 조성이 잘돼 있어 산림욕을 하기에도 좋다.

고란사는 백제 말기 창건된 것으로 추정할 뿐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일설에 따르면 백제 왕들을 위한 정자였다고 하며, 낙화암 3천 궁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028년(고려 현종 19년)에 지은 사찰이라고도 한다.

부소산에서 낙화암과 고란사를 지나면 백마강 유람선을 탈 수 있는 나루터에 이른다. 구드래나루터까지 5분 정도 운항하는 짧은 코스지만 강 한가운데서 낙화암, 부소산성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고란사와 수북정 사이 3.5킬로미터 구간을 황포돛배가 왕복 운항한다.

무량사에는 보물 185호인 5층 석탑과 233호인 석등, 매월당 김시습의 부도 등이 남아 있다. 기념사진을 위한 포토존도 따로 마련돼 있다. 부여 동남리에 있는 궁남지는 경주 안압지보다 40년이나 앞서 조성된 연못으로 백제의 건축기술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3만3천 제곱미터 규모의 연못 한가운데 '포룡정'이란 정자가 그림처럼 떠 있다. 백제 무왕이 왕비인 선화공주와 함께 뱃놀이를 즐겼던 곳이기도 하다.

백제역사문화관은 2010년 완공 예정인 백제역사재현단지 안에 가장 먼저 문을 연 전시관으로 1천4백년 전 백제인의 삶을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수많은 모형과 컴퓨터 영상을 통해 백제인의 의식주와 그들의 건축술, 국방력 등을 설명하고 있다.

대둔산은 군지계곡, 수락폭포, 마천대, 선녀폭포, 낙조대, 수락계곡 등 다양한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수락계곡은 한여름에도 냉기가 감도는 곳으로, 1킬로미터 정도의 깎은 듯한 절벽과 기암괴석의 절경이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답다.

금강 하굿둑은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을 잇는 교량 구실을 하고 있다. 하굿둑 주변의 습지가 보전되면서 겨울철새의 낙원이 되어 탐조 및 생태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하구언 상류에는 갈대숲이, 뒤편으로는 낮은 구릉지가 펼쳐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하굿둑 부근에 자리한 서천 신성리 갈대밭은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 하나로 꼽힌다. 옛날 이곳 주민들은 갈대로 빗자루를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았을 정도로 질이 좋다. 이곳에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가 촬영됐다.

영동군 관광 안내 tour.yd21.go.kr
송호국민관광지 043-740-3228
공주시 관광 안내 tour.gongju.go.kr
무주군 관광 문의 063-324-2114, 322-2905
문의문화재단지 043-251-3545
국립공주박물관 041-850-6300
금강자연휴양림 041-850-2686
부여 백제역사문화관 www.bhm.or.kr, 041-830-3400

영산강 발원지인 담양 가마골 용소.

영산강 남도의 어머니… 정겨운 품속으로

4대강 에코프렌즈
은아

영산강은 담양, 나주, 광주, 화순 등 남도를 넉넉한 품으로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 같은 곳이다. 총길이가 1백38.75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매우 구불구불하다. 그래서 퇴적, 침식작용으로 곡창지대가 생겨났으며 토질이 좋고 비옥하기로 유명하다. 바다의 영향으로 영산강 본류는 하루에 두 번씩 강물이 불었다 줄었다 했는데 이를 이용해 영산강 뱃길이 열렸다. 흑산도 홍어를 내륙지방인 나주 영산포에서 맛볼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까닭이다.

영산강 발원지인 용추봉 주변인 가마골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이 장구한 세월 암반층을 통과하면서 만든 깊은 웅덩이를 '용소'라고 한다. 암반층에 용이 꿈틀대는 형상의 홈이 패어 있는 게 절경이다.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 맑고 깨끗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인근에는 천년고찰 용추사와 용연폭포, 출렁다리와 시원정 등 많은 명소가 있다.

용소를 품고 있는 담양군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메타세쿼이아 길, 죽녹원, 관방제림 등 어디를 가나 멋진 풍광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은 차를 두고 걸어도 좋고 천천히 차를 달려도 좋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은 담양읍 담양군청 동쪽의 학동교차로에서 금월리 금월교에 이르는 옛 24번 국도가 대표적이다. 15번 지방도, 29번 국도, 24번 국도 일부 구간에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이 조성돼 있다. 관방제림은 담양천 홍수를 막기 위해 조선시대에 만든 인공 숲이다. 죽녹원은 대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 여름철에 더위를 이기기에 그만이다. 산책 코스도 부담스럽지 않아 아이들, 부모님과 함께 찾아도 좋다.

대표적 슬로시티인 삼지천마을도 빼놓을 수 없다. 느린 걸음으로 오래된 고택을 돌아보고 건강에 좋은 우리의 맛을 느껴보면서 전통 한옥에서 묵은 피로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선 죽순요리가 인기다. 봄에 채취한 죽순을 보관해두어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 죽순회, 대나무통밥, 죽순추어탕 등이 있다. 떡갈비는 덕인관에서 제대로 맛볼 수 있다. 고기를 다져서 굽는 변형된 떡갈비가 아닌 진짜 갈빗살로 만들었다. 대통밥떡갈비정식을 주문하면 떡갈비와 대통밥, 죽순추어탕이 함께 나온다.

담양서 죽순요리 먹고 장성까지 드라이브

담양읍에서 담양호를 지나 영산강 발원지인 용면 가마골까지 이어지는 29번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다. 담양호와 추월산 사이로 뚫린 도로가 한적하고 주변 경치가 절경이다. 호수와 계곡, 드문드문 있는 찻집과 펜션들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담양과 이웃한 장성은 조용한 여행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백양사를 비롯해 호남 최고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는 장성호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평화로운 풍경을 품고 있다.

내장산국립공원 남쪽의 장성호는 황룡강 상류를 막아 만든 거대한 인공호수로, 남북으로 산에 둘러싸여 아름다운 경관을 이

룬다. 가족단위 산책로와 잘 가꾸어진 민물 낚시터가 있으며, 수상관광을 즐길 수 있는 유람선과 모터보트도 있다. 내장산, 백양사 등의 주요 관광지와도 연결된다.

장성호 푸른 물결을 감상하고 싶으면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나들목으로 나와 1번 국도를 타고 장성 방향으로 달리면 된다. 장성호 상류에 있는 남창계곡을 들렀다 가면 더 많은 비경을 구경할 수 있다.

나주시 남평면을 가로질러 흐르는 작은 강이 영산강 지류인 드들강이다. 드들강변을 따라 화순으로 가는 길이 아름답다. 화순과 나주의 경계에 인공 담수호인 나주호가 있다. 인근에 불회사, 운흥사, 화순 운주사가 인접해 있고 산림욕장이 조성되어 있는 등 주변 경관이 빼어나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1977년 10월 영산포에서 마지막 배가 떠난 지 31년 만인 지난해 영산강 황포돛배가 다시 떴다. 물건 대신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황포돛배지만 그 정취만큼은 빠지지 않는다. 다야뜰 선착장을 출발한 배는 옛 고구려의 모습을 재현한 나주영상테마파크와 석관정, 금강정을 지나 선회하는 왕복 6킬로미터 구간을 운항한다. 소요시간은 30~35분이다. 수십 마리의 왜가리가 모래톱에 앉아 쉬는 모습이나 숲 속에 자리한 석관정 등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간다. 두 척의 배가 오전 10시부터 하루 6회 운항하지만 손님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1백년 전통 '함평 오일장' 푸근한 인심에 젖어

나주 영산포 주변은 홍어로 유명하다. 신안이나 목포 등에서 실은 홍어가 영산포에 이를 때쯤 맛이 제일이라 이곳에 홍어집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지금도 선창가 주변으로 홍어집이 늘어서 그 명맥을 잇고 있다. 또한 옛 영산포 선창에서 정미소 거리까지 7백50여 미터에 당시 형성된 시가지 모습과 일본식 가옥, 상가 등 1백여 채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함평읍내에서 신광면 방면으로 달리다가 대동댐 상류를 거쳐 용천사까지 이어지는 길도 비경이다. 영산강 지류인 함평천 상류인데 늦여름이면 용천사 부근에 빨강 꽃무릇이 장관을 이룬다. 대동댐은 인근에 한국 최대의 자연생태공원이 있어 낚시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천연기념물인 황금박쥐와 먹황새, 검독수리 등이 서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수암공원이 있어 잠시 쉬며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1백년 전통을 자랑하는 함평 오일장은 지역특산물이 풍성하다. 매월 2일, 7일에 열린다. 솟대장승공원도 둘러볼 만한 곳이다. 영산강 줄기를 사이에 두고 갈라지는 영암과 목포는 인접도시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영암이 월출산을 중심으로 내륙지방 특유의 멋을 간직하고 있다면 목포는 항구도시다운 활기가 넘치는 곳이다.

영암의 자랑인 월출산은 천황봉을 비롯해 구정봉, 향로봉 등 기기묘묘한 암봉으로 거대한 수석 전시장 같다. 특히 서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일몰 풍경이 장관이고,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꽃, 여름에는 시원한 폭포수와 천황봉에 항상 걸려 있는 운해,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다. G

글 · 최호열 기자 / 사진 · 월간 〈여행스케치〉 제공

담양군 관광 안내 www.damyang.go.kr/tourism/ 061-380-3151
나주시 관광 안내 tour.naju.go.kr/ 061-380-8107
함평군 관광 안내 hampyeong.jeonnam.kr/2008_hpm 061-320-3733
삼지천마을 www.slowcp.com, 061-380-3807
함평 생태공원 www.ecopark.or.kr, 061-320-3514
장성군 관광 안내 tour.jangseong.go.kr 061-390-7224
영암군 관광 안내 tour.yeongam.go.kr

4대강 문화관광 안내 책자 펴낸 월간 〈여행스케치〉 박상대 대표

정경택 기자

7월 초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포함) 등 4대강별로 강변을 따라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지를 소개한 안내 책자들이 나온다. 손에 쥐고 다닐 정도로 작은 크기에다 두껍지 않아 휴대하기도 쉽다. 하지만 지역별로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꼼꼼하게 정리돼 있어 어떤 여행서적보다 내용이 풍부하고 실용적이다.

여행전문지 월간〈여행스케치(www.ktsketch.com)〉의 박상대(50) 대표는 이 책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라는 좋은 일을 하면서 왜 욕을 먹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이라고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을 잘못 잡았더라고요. 강은 인류와 함께 진화하고 발전해왔어요. 강을 살리는 게 우리들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4대강을 개발하면 일자리 몇 개가 창출되고 몇조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것만 강조해요. 그건 국민들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내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는 4대강을 정비하는 진정한 이유는 "사람들이 강에 쉽게 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강변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화유산과 비경 등 볼거리, 놀거리가 많아요. 아주 좋은 여행지들이죠. 강을 잘 정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즐길 수 있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즐기는 걸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경제적 효과보다 몇 배는 더 클 겁니다."

강 주변 여행지를 소개해 사람들이 찾도록 하자는 게 책자를 발간한 목적인 셈이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월간 〈여행스케치〉 기자들과 함께 4대강(섬진강까지 포함하면 5대강)을 구석구석 누볐다.

"올 여름휴가 때 가족과 함께 4대강 여행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으면서도 친환경적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책을 꾸몄으니 참고하시고요. 우리나라 산하에 이렇게 멋진 곳이 많구나 하실 겁니다."

김병훈의 자전거 여행 5選

그녀의 자전거가 길을 떠났다

자전거여행의 매력은 도보여행보다 지루하지 않고, 자연을 찬찬히 음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경쾌하게 페달을 밟으면 상쾌한 바람에 무더위도 날아간다. 풍광 좋은 자전거여행 코스 5곳을 소개한다.

호남평야 가로질러 지평선 속으로

정읍~김제 동진강 둑길

남북 60킬로미터, 동서 30킬로미터에 달하는 호남평야는 국내에서 가장 넓은 평야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풍경의 하나인 지평선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평야가 시작되는 정읍에서 삼국시대의 수리시설인 김제 벽골제까지는 국내 유일의 지평선 여행지다. 길도 고개를 잊었다.

호남평야의 광활함과 풍성함을 느끼는 데에는 벼가 진초록으로 물드는 여름이나 이삭이 황금빛으로 영그는 가을(9월 말~10월 초)이 가장 좋다. 한여름 내리쬐는 햇살 아래 펼쳐진 거대한 녹색평원은 가슴에 맺힌 온갖 응어리들을 단번에 해소해준다.

호남고속도로 정읍나들목(IC)을 나와 좌회전해 29번 국도 갈림길을 지나 백산 방면 705번 지방도로로 좌회전해서 2킬로미터쯤 가면 동진강 제방길이 시작되는 녹두다리가 나온다. 주차장은 따로 없으므로 근처의 공터에 적당히 세운다.

자전거 코스는 정읍 녹두다리에서 시작해 정읍천대교, 만석대교, 만석보 터, 군포교, 29번 국도, 김제 벽골제까지로 총 23킬로미터.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제방길은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의 너비이고 노면은 좋은 편이다. 하지만 한여름에는 풀이 자라 통행이 불편할 수 있고, 농번기에는 농기계와 자동차가 가끔 다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제 벽골제에서 출발하려면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나들목에서 나와 부안·정읍 방면 29번 국도를 타고 김제 시내를 거

1 지평선이 보이는 호남평야 들판은 자전거를 타고 한여름에 달리는 게 제맛이다.
2 3 청산도는 정갈하고 향토색이 물씬 묻어나는 곳이다.

쳐 10킬로미터쯤 가면 국도 변에 주차할 공터가 있다. 주변에 변산반도(내소사, 채석강, 새만금방조제), 내장산국립공원이 있다.

안내 http://culture.jeongeup.go.kr, http://culture.gimje.go.kr

정갈한 섬마을과 소박한 자연미의 조화

완도 청산도

소설가 고(故) 이청준의 고향인 완도 남쪽 청산도는 매혹적인 섬이다. 지름 7킬로미터(면적 41.8제곱킬로미터)의 적당한 크기에 가장 높은 산인 대봉산이 3백79미터로 평범한 농촌지역 한 조각을 달랑 떼놓은 듯하다. 해변의 마을들은 정갈하고, 산기슭의 산촌도 띄엄띄엄 정겹다. 마을을 잇는 길목에는 향토색이 물씬 풍겨 영화 〈서편제〉와 한효주 주연의 드라마 〈봄의 왈츠〉 무대가 되기도 했다.

대체로 우리의 섬마을은 볼품없지만 청산도는 소박함과 정갈함이 어우러져 우리의 토속적 미감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섬이다.

청산도는 완도항에서 들어가야 한다. 완도항에서 청산도까지는 자동차를 실을 수 있는 카페리가 하루 5회 운항하며 45분 걸린다. 숙박시설과 음식점은 대부분 선착장인 청산항 주변에 모여 있다. 여관과 민박 수준이지만 깨끗한 편이고, 식당은 생선회와 전복죽, 아귀탕, 백반 등을 내놓는다.

자전거 코스는 16.5킬로미터의 도로일주 코스(3시간 소요)와 34킬로미터의 산악자전거(MTB) 코스가 있다. MTB 코스는 청산항 선착장에서 지리해수욕장, 진산해수욕장, 신흥해수욕장, 청계리, 범바위, 권덕리, 〈서편제〉 촬영지, 화랑포를 거쳐 청산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중간에 11킬로미터의 비포장도로와 몇 개의 언덕이 있다. 4시간 정도 소요된다. 몇 남지 않은 장례 풍습인 초분을 발견할 수도 있다. 청산도를 관광한 후 완도에서 청해진 유적지와 전국 최대의 난대 상록수림인 완도수목원을 둘러볼 수 있다.

안내 tour.wando.go.kr, 청산농협 · 061-552-9388

평야와 호수가 어우러진 철새들의 낙원

서산 천수만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로 꼽히는 서산 천수만은 인간의 대역사가 호흡하고 있다. 육지로 파고든 2개의 만에 방조제를 쌓아 만든 인공호수인 부남호와 간월호가 철새들의 새로운 낙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수 주변 갯벌을 간척해 전국 농지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5천5백 헥타르의 거대한 평야가 생겨났다. 농토와 철새 도래지가 새로 생겼으니 천수만의 방조제와 간척공사는 또 다른 의미의 친환경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전거 코스는 간월호 호반을 따라 한 바퀴(총 27킬로미터)를 도는 것이다. 길 전체가 평탄한 비포장 농로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사시사철 철새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공으로 조성한 거대한 호수와 엄청난 평야에 감탄하게 된다.

체력이 된다면 들판 끝에 솟아 있는 도비산(3백52미터) 해돋이전망대에 오르길 권한다. 평원과 호수, 바다가 그려내는 대교향곡에 전율하게 될 것이다. 도비산의 임도를 돌아 부남호를 거쳐 길이 8킬로미터, 최대 폭 7백 미터의 국내 최대 백사장을 이룬 몽산포를 통해 간월도로 갈 수도 있다. 이 코스는 55킬로미터가 넘는다.

서해안고속도로 홍성나들목에서 나와 태안 방면으로 11.5킬로미터 가면 간월도 입구다. 여기서 10킬로미터 남짓 더 가면 77번 국도와 만나는 원청삼거리이고, 우회전해서 1.3킬로미터 가면 왼쪽으로 청포대해수욕장 입구가 나온다. 인근에 간월암, 몽산포해수욕장, 청포대해수욕장, 해미읍성, 안면도가 있다. 숙박은 청포대를 권한다. 태안반도와 천수만 일대는 생선회를 비롯해 대하와 굴 요리가 유명하다.

안내 www.seosantour.net

난대 밀림 가르는 짙은 오솔길

한라산 물찻오름 숲길

제주 한라산은 고도에 따라 식생이 분명하게 달라진다. 해발 4백 미터까지는 개간지가 많고, 그 이상은 울창한 난대림이다. 1천6백 미터 이상 고지대는 아한대의 키 작은 관목 숲이거나 초원을 이룬다. 물찻오름(7백17미터)을 지나는 교래~남원 임도(한남로)는 빽빽한 난대림과 완만한 산록, 물이 스며든 계곡 등 한라산의 속살을 볼 수 있는 자전거 탐방로다.

물찻오름(거문오름)은 백록담처럼 물이 고여 있는 기생화산으로, 짙은 숲 속에서 보게 되는 푸른 물이 차 있는 작은 분화구엔 신비로움이 감돈다.

숲길은 대체로 평탄하고 노면도 좋지만 잠시도 조망이 트이지 않아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숲이 너무 짙어 다소 음습한 분위기가 돈다.

제주 시내에서 5·16도로(1131번 도로)를 따라 서귀포 방면으로 향한다. 제주대 사거리에서 8.4킬로미터 가면 왼쪽으로 교래리와 산굼부리 가는 1112번 도로가 갈라진다. 여기서 좌회전해 1킬로미터 가면 울창한 삼나무 가로수길 오른쪽으로 시멘트 포장된 임도 초입이 보인다. 입구에 주차공간이 있다.

자전거 코스는 1112번 도로변에서 물찻오름 입구, 사려니오름 입구 삼거리, 남조로 방면 좌회전, 1118번 도로를 거쳐 출발지인 1112번 도로로 돌아오는 총 20킬로미터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비포장 임도가 11킬로미터에 달하지만 오르내림이 심하지 않아 초보자도 가능하다. 1112번 도로에서 물찻오름까지는 보행자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남조로에서 출발지로 돌아오는 1118번 도로 구간은 갓길이 있어 그리 부담스럽지 않다.

충남 서산 천수만 자전거 코스를 달리면 평원과 호수,
바다가 그려내는 대교향곡에 전율을 느끼게 된다.

한라산 물찻오름 숲길은 빽빽한 난대림과 완만한 산록, 물이 스며든 계곡 등 한라산의 속살을 볼 수 있는 자전거 탐방로다.

숙박은 자연 속에서 보내고 싶다면 임도에서 가까운 절물자연휴양림을 추천한다. 임도에서 멀지 않은 소인국미니월드와 산굼부리 근처에도 펜션이 있다. 산굼부리, 성판악, 절물자연휴양림, 정석항공관, 제동목장 등 둘러볼 명소도 주변에 많다.

안내 www.jejutour.go.kr
절물자연휴양림 064-721-7421 jeolmul.jejusi.go.kr

철책선 끼고 달리는 변경의 상처

강화 교동도

강화도 서북쪽에 있는 교동도는 고려와 조선 1천년간 개성과 서울의 관문이자 군사요지였으며, 활발한 무역항이었다. 지금도 옛날 중국 화폐가 많이 출토된다. 섬에서 가장 높은 화개산(2백60미터)에는 화개산성이 남아 있다. 서쪽의 서한리에는 봉수대가 전한다. 교동읍성은 한때 번성했던 옛 시절의 흔적을 보여준다.

교동도는 북한쪽 황해남도 연안군과 2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최전선이다. 해변의 평지에 자리한 거대한 난정저수지와 강화군 전체에서 가장 넓은 교동평야, 그리고 교동읍성과 철책선의 긴장감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섬이다.

서울에서 강화 가는 48번 국도를 따라 강화읍을 지나 계속 가면 고인돌로 유명한 하점면이다. 하점면 소재지를 지나 신봉삼거리에서 좌회전해 창후리 방향으로 5.5킬로미터 가면 포장도로가 끝나고 작은 포구가 나온다. 이곳 창후리선착장에서 교동도 월선선착장까지 20분 간격으로 자동차도 실을 수 있는 카페리가 운항한다. 15분 소요된다. 편도 요금은 성인 1천5백원이고, 자전거는 1천5백원의 추가요금을 받는다.

자전거 코스는 월선선착장에서 출발해 교동읍성, 대룡리, 양갑리, 난정저수지, 지석리 망향대, 인사리, 고구저수지, 농로, 봉소리 복지회관, 화개산 송림고개에서 월선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총 29킬로미터 코스로 4시간 정도 소요된다.

식당과 가게가 대룡리밖에 없으므로 물과 간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최전방 군사보호지역이어서 해안 철책선에 손을 대면 안 되고, 출입금지 표시가 있는 곳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안내 www.ganghwa.incheon.kr
창후리선착장(화개해운) 032-933-4268 G

글과 사진 · 김병훈(월간 자전거생활 발행인)

자녀와 함께 떠나는 생태여행지 5選

분위기 살리고 생명도 살리고 살리고

생태여행(Eco-Tourism)은 '환경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 방식'을 말한다. 자연 그대로를 느끼고 체험하는 여행으로, 자녀들이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 늪지인 경남 창녕 우포늪.

생명의 경이로움 느끼게 할 '생태계의 자궁'

경남 창녕 우포늪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자연 늪으로 생태계의 보물창고다. 지난해 4월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르 총회가 열려 화제를 모은 곳으로 소의 머리를 닮은 우항산이 늪에서 물을 마시는 듯하다고 해서 우포(牛浦)라 불린다. 전체 넓이는 여의도와 비슷하며 가장 큰 우포를 비롯해 목포와 사지포, 쪽지벌 등 4개 늪으로 이뤄져 있다.

우포늪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서식한다. 갈대, 줄, 붕어마름, 생이가래…. 여름이면 녹색 융단처럼 펼쳐지는 이런 물풀이 먹이사슬의 밑바탕이다. 그 틈에 붕어와 개구리가 살며 천연기념물인 왜가리며 백로, 저어새가 둥지를 튼다. 현재 서식이 확인된 동식물만 해도 6백여 종에 달할 만큼 자연생태계가 건강하다.

세진리 우포늪 입구에 있는 우포늪생태관에서 우포늪에 기대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고, (사)푸른우포사람들이 운영하는 우포자연학습원에서 장대나뭇배 타기, 논우렁이 잡기 같은 우포늪을 테마로 한 여름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화왕산, 부곡온천 등이 멀지 않으며 주변에 우포늪에서 잡은 붕어찜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몇 군데 있다.

우포늪은 넓은 만큼 탐방 코스가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세진리 우포늪생태관 앞에서 대대제방이나 전망대 등을 둘러보는 코스다.

창녕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영신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유어 방면 버스를 타고 회룡에서 하차한다. 세진리 주차장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며, 주차장에서 탐방용 자전거를 대여해준다. 사지포, 목포늪 등은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우포늪생태관 055-530-2690 www.upo.or.kr
푸른우포사람들 055-532-8989 www.woopoman.co.kr

눈부시게 반짝이는 염전과 느림의 미학이 있는 섬

전남 신안 증도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증도에는 갯벌생태 교육기관인 갯벌생태전시관(061-275-8400)이 있다. 우리나라 갯벌 모습과 갯벌의 탄생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체험학습실에서는 밀물 · 썰물 관찰과 소리체험 등이 가능하다.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남 신안 증도(왼쪽). 강원 인제 방태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숲 해설을 들을 수 있다.

거무튀튀한 갯벌 위 공중에 떠 있는 4백70미터 길이의 목조다리, 일명 '짱뚱어다리'는 전시관을 능가하는 갯벌 학습 장소로 손꼽힌다. 전시관과 달리 이곳은 눈으로 직접 보며 공부하는 공간이다. 짱뚱어가 많이 서식해 붙여졌다는 이름 그대로 다리 밑에 짱뚱어 천지다.

증도는 국내 단일염전으로는 가장 크다는 태평염전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옛 소금창고를 활용한 소금박물관에서는 천일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염전체험장에서는 수차 돌리기, 대파질 같은 염전체험을 할 수 있다.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에 놓인 돌다리 '노두'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 중 하나이고, 노두길 끝에서 만나는 섬 '화도'는 드라마 〈고맙습니다〉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해송숲으로 둘러싸인 우전해수욕장의 은빛 백사장도 여름철엔 놓칠 수 없는 곳. 야자수가 어우러져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느낌을 준다. 별미로는 병어, 민어 등이 있다.

목포에서 지도읍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한 다음, 지도읍에서 군내버스로 10분쯤 달리면 송도선착장을 지나 사옥도의 지신개선착장에 이른다. 이곳에서 증도행 배를 타면 된다.

안내 tour.shinan.go.kr

소금박물관 061-275-0829 www.saltmuseum.org

나무와 풀, 꽃, 숲이 전하는 자연의 향기

강원 인제 방태산

아이들에게 숲의 식생에 대해 알게 하고 싶다면 숲 해설가가 있는 자연휴양림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방태산 자연휴양림은 '삼둔사가리'라 불리는 오지에 숨어 있어 원시림처럼 숲이 깊고 울창하다. 숲 사이로 이단폭포와 마당바위 등의 절경이 이어지는 계곡엔 시원한 물이 흘러 사계절 휴양과 생태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숲 해설은 산림휴양관을 예약할 때 미리 신청하면 들을 수 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2회 운영된다. 숲 해설의 백미는 쪽배체험이다. 조릿대잎으로 쪽배를 만들어 계곡물에 띄워 보내는데 아이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방태산 자연휴양림 근처의 방동계곡은 물살이 세지 않고 수심이 얕아 여름철에 발을 담그고 놀기에 제격이다. 레포츠 명소인 내린천에서는 3시간 정도 래프팅을 신나게 즐길 수 있다. 합강레포츠공원의 번지점프도 인기다. 현리에서 하루 세 차례 운행하는 밤골행 버스를 타고 종점인 밤골마을에서 2킬로미터 가면 휴양림이 나온다.

안내 www.gangwon.to

방태산 자연휴양림 033-463-8590 www.huyang.go.kr

갈대밭과 갯벌이 어우러진 전남 순천만. 경기 양평 민물고기생태학습관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체험을 할 수 있다(오른쪽).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이 어우러진 '에코투어 1번지'

전남 순천 순천만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의 무대로 10여 리에 이르는 광활한 갈대밭과 수많은 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갯벌, 크고 작은 섬들로 이뤄져 있다. 갯벌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명승 지정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여름이면 녹색 갈대밭과 어울린 붉은 칠면초가 장관을 이루는데 갈대밭과 갯벌에는 짱뚱어와 농게가 수두룩하다.

갈대밭 위에 설치된 1.2킬로미터 길이의 목조 탐방로를 거닐면서 관찰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겐 짱뚱어가 인기다. '솟다리'라고 불리는 가슴지느러미를 이용해 갯벌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이 귀엽기 그지없다. 흑두루미(천연기념물 제228호)를 비롯한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2백여 종의 철새들이 계절을 달리하며 펼치는 군무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 대대포구를 출발해 'S'자 물길을 따라 달리는 순천만 탐사선을 이용하면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밭 풍광과 함께 갯벌 생물과 철새를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해질 무렵이면 용산전망대에도 반드시 올라보자. 목조 탐방로를 지나 1킬로미터쯤 더 가면 나타나는데 갈대숲과 S자 물길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육상에서 밀려온 퇴적물들이 쌓여 만들어진 자연습지들이 누군가 일부러 그려 놓은 듯 동글동글한 것이 인상 깊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순천만 자연생태관에서 생태환경교실이 열린다.

3대 승보사찰 중 하나인 송광사와 낙안읍성, 승선교로 유명한 선암사, 별자리 관찰을 할 수 있는 순천만천문대 등이 멀지 않다. 순천만의 별미는 껄쭉한 짱뚱어탕이다. 순천만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대대포구는 순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월평리를 거쳐 대대리까지 운행하는 67번 시내버스를 타면 된다.

안내 tour.suncheon.go.kr
순천만 자연생태관 061-749-3006 www.suncheonbay.go.kr

철갑상어 · 각시붕어 · 쉬리 한자리에

경기 양평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우리나라 민물고기의 생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1층에서는 쉬리, 열목어, 황쏘가리, 감돌고기, 가시고기, 묵납자루 등 지금껏 잘 보지 못했던 70여 종의 살아 있는 토종물고기들을 살펴볼 수 있다. 2층에서는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체험 시설이 관람객을 맞는다.

박제 물고기에 낚싯대를 대면 물고기 사진에 불이 들어오는 '낚시체험'과 함께 탁본, 터치스크린을 통해 물고기 퀴즈를 즐길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이 마치 수족관에 들어가 물고기들과 어울리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물고기와 함께 춤을' 프로그램과 야외 수족관에 8개의 칸막이를 만들어 붕어, 피라미 등을 풀어놓아 누구나 만져볼 수 있게 만든 '터치 풀'도 인기다.

은행나무로 유명한 용문사와 북한강변에 위치한 들꽃수목원, 허브 관련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풀향기허브나라 등이 멀지 않다. 식당은 풀향기허브나라에서 용문사로 이어지는 길에 많은데 대부분 산채요리 전문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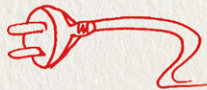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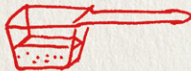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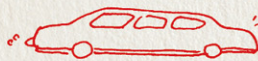
용문역에서 광탄까지 가는 버스를 타면 된다. 광탄에서 민물고기생태학습관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다.

안내 tour.yp21.net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031-8008-6523 fish.gg.go.kr G

글과 사진 · 이시목(여행작가)

KOGAS

일회용 컵 안쓰기

적정 실내온도 맞추기

안쓰는 플러그 빼두기

세제 적게 쓰기

경차 · 소형차타기

수돗물 받아서 쓰기

가스불 줄이기

'愛'너지!

사랑한다면 다이어트하세요

하나씩, 한 방울씩, 1도씩...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 경제에 큰 희망이 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번거롭더라도
모두를 위한 에너지 다이어트,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MKE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

올여름 휴가는 녹색으로 떠나자

1년에 한 번뿐인 여름휴가. 아직 특별한 휴가계획이 없다면 환경부와 산림청이 선정한 '생태관광지'와 '산촌 생태마을' 중 한 곳으로 떠나는 것도 좋겠다. 물 좋고 산 좋은 생태마을에서 넉넉한 휴가를 보내보자.

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피서를 즐기기에 적합한 전국의 대표적인 산촌마을 15곳을 선정했다. 산림청이 선정한 '가고 싶은 산촌체험마을'은 민박이나 펜션,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계곡에서의 물놀이와 산나물 채취, 자연관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산림청은 "산촌체험은 물론 인근 관광명소도 동시에 관람할 수 있어 물 좋고, 산 좋고, 사람 좋은 산촌마을에서 기억에 남을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고 싶은 산촌체험마을'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문화 포털사이트 '숲에on'(www.foreston.go.kr)에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환경부가 지난 4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선정 발표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20선'도 여름휴가지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생태관광 20선은 지자체들이 추천한 78개 지역 가운데 자연생태의 우수성과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유무, 문화자원과의 연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 과정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태관광 포럼' 위원의 현장 점검까지 실시해 확실한 '검증'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형별로는 습지생태계 7곳(부산, 시흥, 안산, 서산, 서천, 창원, 창녕)과 비무장지대(DMZ)생태계 2곳(철원, 양구), 해안생태계 4곳(남해, 신안, 제주 2곳), 숲 · 문화자원 7곳(무주, 안동, 문경, 울진, 청원, 영월 · 정선, 평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태관광지에서는 자연환경 해설사와 문화 해설사의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자연환경 해설 및 체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생태관광 사이트(www. eco-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G

글 · 구자홍 기자

환경부 선정 '생태관광' 20선

지역	내용
부산	낙동강 하구로 떠나는 생태기행 051-888-3592 www.busan.go.kr, www.wetland.busan.go.kr
경기 시흥	노을이 쉬어가는 낙조와 갯골여행 031-310-3472 www.shcity.net
안산	갈대와 갯벌, 그리고 옛 염전이 아름다운 곳 031-481-3059, 031-481-2885 hawk.iansan.net/02_sub/body02.jsp?menuId=2
강원 철원	DMZ 전쟁과 평화, 그리고 생명의 물길 따라 자연기행 033-450-5544 tour.cwg.go.kr
영월 정선	천혜의 비경 동강, 하늘 아래 첫 동네 정선 033-370-2166(영월), 033-560-2345(정선) yw.go.kr, ywtour.com www.jeongseon.kr, www.ariaritour.com
평창	아름다운 대자연이 펼쳐지는 곳 033-330-2368 www.yes-pc.net
양구	원시 자연이 살아 숨쉬는 DMZ 자연체험 033-480-2336 www.yanggu.go.kr
충북 청원	허브향과 함께하는 대청호 호반 자연생태탐방 043-220-5682, 043-251-3121 chnam.cb21.net, www.sangsooherb.com www.cbforest.net, www.lotusvill.net
충남 서산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서산 생태관광 041-660-3024 seosantour.net, www.seosanbird.com www.birdcenter.kr
서천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어메니티 서천체험 041-950-4089 www.seocheon.go.kr
전북 무주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숲, 자연의 나라로 063-320-2570 www.mujutour.com
전남 신안	태고의 자연이 머무는 비경의 섬! 흑산·홍도 체험여행 061-240-8442 www.shinan.go.kr
경북 안동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자연과 인간의 만남 054-840-6181 www.andong.go.kr
문경	영남대로 과거길로 떠나는 생태기행 054-550-6381 tour.gbmg.go.kr/
울진	자연 그대로의 보물 울진·왕피천 자연기행 054-789-6710 www.uljin.go.kr/
경남 창원	철새와의 아름다운 비행, 주남저수지 생태기행 055-212-2796 www.junam.kr
창녕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고장, Welcome to 창녕 055-530-2691 cng.go.kr
남해	푸른 하늘과 바다와 땅이 맞닿은 보물의 섬 남해체험 055-860-3251 darangyi.go2vil.org, tournamhae.net/butterfly www.sunupart.asia, www.supiaa.net
제주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속으로… 선흘2리 064-710-6032 jejuwnh.jeju.go.kr/
	걸을수록 아름다운 자연에 흠뻑 빠져드는 올레체험기행 064-739-0815 www.jejuolle.org

생태마을에서는 지역별 특색이 가미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산림청 추천 '가고 싶은 산촌생태마을' 15선

마을	연락처
경기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명달산촌생태마을	ecosanchon.invil.org 031-773-6264, 016-750-6443
경기 파주군 적성면 객현리 객현산촌생태마을	www.4seasonstory.co.kr 031-959-0932, 011-9880-6572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벌마을	daegiri.invil.org 033-563-3592, 010-7437-2550
강원 화천군 화천면 동촌리 산속호수마을	e-dongchon.com 033-442-3992, 017-433-4466
강원 영월군 하동면 내리 내리산촌생태마을	www.naeri.kr 033-378-5503, 011-9919-4335
강원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고로쇠마을	www.misan1.org 017-371-2764
충북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명심산촌생태마을	myeongsim@invil.org 043-532-7956, 011-286-7956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한드미마을	www.handemy.org 043-422-2831, 011-9418-8857
충남 청양군 대치면 광금리 칠갑산 산꽃마을	www.sankkot.com 041-944-2007, 011-211-8150
전북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산사미산촌생태마을	www.sansamy.kr 063-432-1311, 011-404-6818
전북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학동산촌생태마을	www.hakdong.or.kr 063-432-5954, 011-9642-5954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하늘별마을 만행산 천문체험관	www.skystarville.or.kr 063-626-9009, 011-9647-6308
전북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하늘내들꽃마을	www.solwzone.co.kr 063-353-5185, 011-9370-9532
전남 화순군 도암면 봉하리 봉하산촌생태마을	www.bongha.kr 061-375-3257
경남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송전산촌생태마을	songjunri.com 055-963-7949, 019-463-5989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시범코스로 선정된 전북 고창군의 '고인돌과 질마재 따라 1백리길'.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 시범코스 선정

걸으며 즐기는 이야기 삼천리

도보 관광객을 위한 친환경 여행상품이 나온다. 소백산 자락길, 강화 둘레길, 정약용의 남도유배길, 동해 해안길, 섬진강 따라가는 박경리의 '토지'길, 고인돌과 질마재 따라 1백리길, 여강(남한강) 따라가는 역사문화체험길 등이 시범 운영된다.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역사 등에 관한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길 위에 펼쳐지는 체험형 도보관광 코스가 전국 곳곳에 생겨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늘어나는 도보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친환경 관광상품으로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를 만들기로 했다.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만들기 프로젝트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프로젝트의 올해 첫 사업은 시범 탐방코스 운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부터 각 지역 전문가들에게서 35개 후보지를 추천받은 후 이 중에서 12개 코스를 답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여행작가와 동호회 관계자로 구성된 답사단의 현장 답사를 거쳐 최적의 시범 사업지 7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는 도보관광을 하기에 좋은 길을 역사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생태, 복합형 등 테마별로 분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옛길을 찾아 가꿔간다는 취지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옛길인 삼남대로, 영남대로, 관동대로 내 구간들을 포함했으며 지역의 역사문화를 배울 수 있는 박물관, 전시관 등을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했다. 아울러 향후 전국단위 탐방로 조성을 염두에 두고 광역적 연계성을 고려해 탐방코스를 선정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동아DB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시범 사업지

탐방로명	옛길, 역사길	광역적 연계성	주관단체 및 문의
소백산 자락길	죽령옛길 죽계구곡길 – 이황	봉화 ←영주읍→단양→ 영월(소백산 둘레 연결)	(사)영주문화연구회 054-633-5636
강화 둘레길	심도기행길–고재형	강화섬 둘레 및 김포 연결 강화 역사·돈대길, 심도기행길	강화도 시민연대 032-933-6223
정약용의 남도유배길	삼남대로 – 누릿재	나주←영암←강진→ 해남(땅끝마을)	(사)광주YMCA 062-232-6131
동해 해안길(동해 트레일)	관동대로, 소공령 – 황희 정승	(삼척관동대로) 속초←강릉←삼척←울진 (영덕 동해블루로드)영덕→포항→부산	웰컴투삼척추진협의회 033-574-0330 영덕군관광진흥협의회 011-808-7404
박경리의 '토지'길	십리벚꽃길(혼례길)	하동→구례→곡성 (섬진강 생태길)	(사)한국문인협회 하동지부 011-9311-2495
고인돌과 질마재 따라 1백리길	질마재 – 서정주	고창→변산반도	고창문화원 063-564-2320
여강(남한강) 따라가는 역사문화체험길	아홉사리 고개 (한양 가던 과거길)	양평← 여주→목계나루→ 충주(한강길)	한살림여주이천광주생활협동조합법인 031-632-1801, 031-881-2834

강원도 동해안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이 살아 숨쉬는 풍광을 만날 수 있다.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에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도 포함돼 있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탐방로가 있는 해당 지역에 '문화생태탐방 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탐방로 안내, 방문자 교육·체험 프로그램 진행, 지역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를 구축해 탐방 노선의 위치, 길이, 스토리(테마), 숙박, 교통 관련 정보도 상세히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탐방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탐방자원의 변화·훼손 실태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탐방로의 품질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자전거 이용 구간 포함… 정기 모니터링도

탐방로를 주관하는 지역단체에는 안내판 설치, 스토리텔링,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1억원 내외)가 지원된다. 탐방로 운영과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운영단체에는 인센티브 등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에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탐방로에는 탐방자원 보호, 탐방객 요구사항 대응 등 탐방로 조성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인공물 설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변 환경과의 조화, 탐방지역의 특화된 주제 발굴에 힘써 문화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탐방로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를 소통의 길, 치유의 길, 인생을 키우는 길, 재미있는 길로 만들기 위해 청소년여행문화학교를 운영하고 모니터링 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한편 각 탐방로에 스토리텔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만들기 프로젝트에는 2017년까지 1천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부터 연간 1백30킬로미터 내외의 탐방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2017년까지 삼천리에 해당하는 1천2백 킬로미터의 탐방로가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홍성운 사무관은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국내 여행 활성화는 물론 국민 개개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행객들은 도보여행을 하면서 느림의 미학과 성찰의 시간을 즐길 수 있고,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은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관광객 유치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전문가가 알려주는 녹색관광 제대로 즐기기 노하우

있는 그대로 느리게 걷자

녹색관광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마음가짐부터 새로워야 한다. 빠듯한 일정보다는 여유 있는 일정으로, 나만 생각하기보다는 주변과 환경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여행이 주는 자유와 즐거움을 누려보자.

일러스트 · 남동윤

체류형 여행을 하라!

관광은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보려고 욕심내는 일이 벌어진다. 보고 떠나는 수학여행 같은 여행, 6박 7일에 동남아 4개 나라를 돌아보는 여행, 명소를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느냐를 자랑하는 여행은 잊어라. 초보여행일수록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많은 곳을 돌아보고 싶어진다. 요즘은 디지털카메라와 동영상까지 동원되어, 내가 보지 않고, 카메라의 눈을 통해 한번 보고 돌아오는 여행도 많다. 이런 현란한 백화점식 여행은 피하고 한 곳에 머물며 의미를 음미하는 여행을 하자.

동선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걸어라!

여행이 업인 필자는 소백산 남쪽을 여행하면서 예전에는 풍기→소수서원→선비촌→금성단→부석사→봉화 닭실마을→청량산 코스를 1박 2일에 주파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양반인 셈이다. 2박 3일 일정을 짜면서 강원도와 경상도를 넘나드는 여정을 짜는 경우가 있다. 길에 버리는 시간과 기름값이 아깝다. 요즘은 이렇게 동선을 짠다. 소수서원→선비촌(1박)→금성단→순흥 읍내→묵밥집→죽계구곡으로 마무리한다. 소수서원 옆에 붙은 선비촌에서 하루 묵고 그 주변을 여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성단과 순흥 읍내까지는 걸어 다닌다. 좀 더 걷기를 원하면 죽계구곡까지 가는데, 그곳은 그늘이 적고 시멘트 포장길이어서 여름에는 걸어가라고 권하기가 곤란하다. 죽계구곡 안쪽의 초암사에서 달밭골계곡을 걸으면 소백산의 아름다움을 한껏 만끽할 수 있다. 초암사는 퇴계 이황 선생이 소백산 국망봉을 오르는 길에 하룻밤 묵었다는 곳이다. 이렇게 옛이야기 속 위인을 만나는 것도 두 발로 걷는 녹색여행이 주는 낭만이다.

여행은 때로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

요즘 인기 있는 생활체험이 한옥체험이다. 한옥에서 하룻밤 자는 것이다. 보통의 한옥은 안채에는 주인이 살고, 바깥

채나 사랑채를 내주어 한옥체험을 하게 한다. 그런데 사실 안채가 궁금하다. 손님이 아니라 '한옥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순흥 소수서원 옆 선비촌이다. 선비촌은 세트장이 아니다. 경북 북부 지방의 한옥들을 그 모양 그대로, 돌부리 하나까지 복원해놓았다. 선비촌 집 한 채를 빌리면 그날 하루는 그 집의 주인이 된다. 그래도 사람 사는 한옥을 가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그 집의 '진짜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라. 지난달 안동의 한옥에 가서 실수를 했다. 밤이 적적하여 마루에 앉아 양념통닭에 맥주를 시켜먹고, 노래까지 한 곡 뽑았다. 다음 날 아침 안채에 머물던 주인 할아버지가 집안 다 망가졌다고 언짢은 얼굴로 마당을 배회했다. 우리도 불편했지만, 한옥체험을 한다면서 마치 강가 유원지로 놀러온 것처럼 했으니 결례를 한 것이다. 여행은 때로 불편할 수 있는 것이다.

드라마 세트장만 고집하진 말자

일부 드라마 세트장은 자칫 공해가 될 수 있다. 세트장을 위해서 6개월, 아니 3개월만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놓고, 드라마 찍고는 빠져나간다. 시청자들은 그곳을 주인공처럼 배회하며 사진을 찍는다. 사진은 모든 가짜를 진짜처럼 만든다. 사진과 어깨를 겯고 사진을 찍으면 모든 게 사진이 된다. 그 옆에는 불타기 쉬운 소재로 건물이 지어졌으니 불조심하라는 표시가 적혀 있다. 담벼락은 무너질지 모르니 기대지 말라는 말도 있다.

영주 선비촌을 높이 치는 것은 이렇게 서너 해 지나면 쓰레기가 될 세트장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땅을 갈고 건물을 지을 거라면 후손에게 물려줄 집을 지어야 한다. 고로 환경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수명 짧은 세트장 여행은 이제 그만하라. 이것은 녹색관광이 아니다.

자연을 즐기되, 자연을 알아라!

걷기가 유행이다. 차를 타고 가던 여행에서 걷는 여행으로 돌아서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삶의 속도도 느려지는 것 같다. 그동안 무시해왔던 많은 것들이 보인다. 숲을 걷는 것은 더욱 싱그럽다. 그런데 자연에 가까이 가더라도 자연을 알아야 한다. 벌꿀 농사를 짓는 이가 6년째 벌꿀 흉년이라면서 한마디 충고를 한다. 숲 속 나무에 옷을 걸어두지 말란다. 숲 속에 벌렁 눕지 말란다. 풀밭에 함부로 앉지도 말란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전에는 휴전선 근처에나 있었던 유행성출혈열이 이제는 전국에 다 있단다. 유행성출혈열은 급성으로 발열, 요통과 출혈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감염되는 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숲을 즐기되, 숲을 알자.

발상을 바꾸자, 식물채집 하나라도

다시 영주 선비촌으로 들어가 보자. 그곳에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가족여행을 갔다. 그런데 마당에서 친구 부인이 딸들을 데리고 화단에서 꽃을 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꽃을 꺾었다. 꽃 이름을 가르쳐주더니, 그 꽃을 딸아이의 머리에 꽂아주었다. 예뻤냐고? 예쁘지 않았다. 지천으로 나 있는 들풀이라면 모르겠다. 누군가가 가꿔놓은 화단에서 꽃을 꺾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더욱이 아이를 앞세우고 예절을 어기는 것은 어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요즘 부모들이 그렇다. 자식을 한둘 두다 보니 자식만큼 귀한 게 없다. 예전에는 식물을 꺾어다가 책갈피에 넣어 식물표본을 만들었다. 이제는 발상을 달리해야 한다. 여행을 가면 식물을 꺾지 않더라도, 꽃을 따지 않더라도 식물표본을 만들 수 있다. 사진을 찍어라. 그리고 그것을 식물도감과 비교해 보고, 표본을 만들어라. G

글 · 허시명(한국여행작가협회 회장)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음미하는 느린 여행,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녹색여행이다.

조영철 기자

'허정무號' 월드컵 7연속 본선 진출 신화를 쓰다
남아공 16강 희망봉을 향해 쏴라

허정무 감독이 강온 양면을 구사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남북한이 처음 동시 진출한 남아공월드컵에서 양 팀의 16강 진출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이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하자 거스 히딩크 축구대표팀 감독의 카리스마와 지도력이 화제가 됐다. 철저하게 실력을 기본으로 선수를 선발했고, 선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전력을 극대화했을 뿐 아니라 순간적인 대응력으로 심판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그의 모습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매료됐다. 그가 한국을 떠난 이후 한국축구는 하락세를 걸었고, 여러 명의 외국인 감독이 거쳐 갔지만 그다지 성공한 카드는 없었다.

7년이 지난 지금 한국축구의 부활을 이끌고 있는 장수가 있다. 그는 외국인 감독이 아닌 한국인 허정무(54) 감독이다. 주장에 박지성을 선임해 대표팀 분위기를 백팔십도 바꿔놓고, 신인 선수들을 대거 발탁해 대표팀의 전력을 끌어올리는 등 선수를 발굴해내는 탁월한 안목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한국의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어냈다. 대표팀이 예선에서 두 경기를 남기고 일찌감치 월드컵 본선 진출을 결정짓자 허 감독의 지도력은 히딩크 감독과 비교될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허 감독은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 새로운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했다. K리그에서 뛰어난 기량을 펼치는 선수라면 누구나 대표팀에 불러 기량을 점검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대표팀의 초반 성적은 초라했다.

그러나 허 감독은 주변의 우려에도 '세대교체 없는 대표팀에는 미래가 없다'는 일념으로 계속해서 '젊은 피'를 수혈했다. 경험은 부족하지만 개인기술과 패기로 무장한 젊은 태극전사들은 박지성, 이영표, 이운재 등 노장 선수들과 호흡을 이뤄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대표팀은 북한과의 첫 경기에서만 비겼을 뿐, 이후 두 경기를 내리 손에 넣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정 경기로 치러진 3차전을 이근호, 박주영 등 젊은 선수들의 활약으로 승리하며 대표팀은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결국 대표팀은 무패로 본선 진출을 결정지었다. 허 감독의 뚝심이 빚어낸 결과였다.

탁월한 안목,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본선 진출

박지성 주장 선임도 그의 탁월한 선택 중 하나다. 기존 주장 김남일의 경고 누적으로 공백이 생기자 허 감독은 주저 없이 박지성을 택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세계적인 스타 박지성이 주장을 맡아 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면서 팀을 융화시켰다. 엄격한 선후배 관계가 아닌 함께 어울리는 선후배 관계가 형성되면서 어린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자신감 있는 경기를 펼쳤다. 또한 박지성의 솔선수범은 대표팀 분위기를 '스스로 움직이는 팀'으로 백팔십도 변신시켰다

허 감독의 지도 스타일은 강약 조절이 특징이다. 허 감독은 강하기로 소문난 감독이어서 그가 대표팀 감독에 선임된 직후 대표급 선수들은 걱정했다. '대표팀 발탁=죽음'이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

동아DB

허정무 감독이 주장으로 발탁한 박지성 선수는 팀 융화의 구심점이 됐다.

동아DB

선수들을 때론 강하게,
때론 부드럽게 지도하는 허정무 감독은
강온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하지만 허 감독은 바뀌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을 때의 실패를 거울삼아 훈련 방식과 지도 스타일 등을 모두 바꿨다. 경기 중심의 훈련과 강온(强穩) 조화를 바탕으로 선수들을 지휘했다. 허 감독의 스타일 변신은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 선수들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었고, 전술과 훈련 방법 등도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함께하는 축구를 이뤄냈다.

'한국인' 감독도 할 수 있다

허 감독은 또 하나의 도전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인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태극호를 월드컵 16강에 올려놓는 것이다. 최근 2차례 월드컵에서 대표팀 사령탑은 모두 외국인이었다.

허 감독은 '한국인 감독도 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있다. 이번 월드컵이 생소한 아프리카 대륙의 남아공에서 열리기 때문에 16강의 길은 더욱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허 감독은 벌써부터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월드컵 최종예선전을 마친 직후 남아공으로 날아가 현지답사를 하고 내년 1월의 전지훈련지를 정하는 등 월드컵 16강 진출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월드컵은 남북한이 동시에 출전하는 첫 무대다. 허 감독 처지에서도 더욱 신경 쓰이는 모양이다. 전력만 놓고 보면 남과 북 모두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은 여러 차례 월드컵을 경험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럽, 남미 등 세계적 강호들에 비하면 기량이 한 수 아래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1966년 잉글랜드월드컵 이후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북한은 경험도 없고 전력도 크게 떨어진다. 세계축구의 흐름과 달리 수비에 치중하는 스타일로 월드컵 본선에서 강호들과의 대결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남과 북의 월드컵 본선 16강 진출은 얼마나 잘 대비하느냐가 중요하다.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고 유럽 강호들과 대결하면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고 말한 박지성의 말처럼 경험을 통해 팀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오는 11월 유럽 원정으로 2차례 A매치를 치를 계획이다.

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동반 진출한 남과 북이 동시에 16강에 오르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러나 월드컵 최종예선을 통해 보여준 불굴의 투지와 노력이라면 또 한 번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를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아직 구체적인 훈련 계획 등을 발표하지 않았다. 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동반 진출한 남과 북이 동시에 16강에 오르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러나 둥근 축구공처럼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종목이 바로 축구다. 남과 북 선수들이 월드컵 최종예선을 통해 보여준 불굴의 투지와 노력이라면 또 한 번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를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G

글 · 최용석(스포츠동아 기자)

공학과 인문학의 만남, 한국연구재단 배규한 사무총장

"학문 간 네트워킹 신생 분야 개척에 유리"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한 한국연구재단이 6월 26일 출범했다. 이공계와 인문사회계를 아우르는 매머드급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탄생에 학계와 연구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한국연구재단 배규한(58) 사무총장은 "한국연구재단은 학문 간 융합이 중시되는 21세기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연구지원기관"이라고 운을 뗐다. 배 사무총장은 국민대 학생처장, 사회과학대학장 등을 거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대전시 대덕연구단지에 본부를 둔 한국연구재단은 5본부 1센터 체제로 향후 모두 3백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예산 규모는 2조 7천억원이다.

인문 · 과학 분야를 한곳에서 연구한다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그간 학문은 분화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 후반 들어 오히려 학문 간 칸막이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21세기는 학문간 통합과 융·복합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출범으로 이런 흐름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연구지원의 틀이 생긴 셈입니다. 외국의 연구지원기관들도 우리의 새 시도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문 간 접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첨단공학이나 이학만으로는 21세기 사회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지적(知的) 엔진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가치관이나 행동양식, 사회제도 등이 그 이면을 받쳐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첨단 인공지능 컴퓨터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기계나 신소재공학과 더불어 심리학, 사회학적 연구가 융합돼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서로 다른 분야 연구자들의 교류와 네트워킹이 촉진되면 신생 분야 개척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주목받을 새로운 연구 분야가 있습니까.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분야 연구나 실용적 연구,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과 신생 분야 연구 등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성의 영역입니다. 인터넷만 해도 컴퓨터와 통신, 상호작용 방식이 우연히 결합되고 확장돼오다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미래형 연구지원에 대해 어떤 밑그림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구자의 잠재역량과 열정만 충분하다면 결과가 불확실한 과제라도 지원하려 합니다. 특히 새로운 길을 암중모색하는 기초 분야를 더 많이 지원할 겁니다. 이런 과제들은 99개가 실패해도 하나만 성공하면 미래사회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앞으로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국연구재단은 국가에 꼭 필요한 기초과학 연구 브레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치 첨단과학 연구에 인문사회학적 지식이란 토대가 꼭 필요하듯 한국연구재단의 존재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G

글 · 손정숙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4대강 살리기

제12 화

형님! 형님!

감돌고기
잉어목 잉엇과
학명 : Pseudopungtungia nigra
슈도펑툰지아 니그라

2009년 금강

글 이연수 그림 이호

못 보던 녀석이 우리 구역에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형님!

어름치
잉어목 잉엇과
학명 : Hemibarbus mylodon
헤미바르부스 밀로돈
천연기념물 제259호

내버려둬라.

네?

참종개
잉어목 기름종개과
학명 : Iksookimia koreensis
익수키미아 코린시스

이 세계에서 체격 좋으면 뭐 해. 매운탕거리밖에 더 돼?

그래도….

인간들이 방류해서 겨우 도로 살려낸 놈이다. 맷집만 좋았지 워낙 신경이 예민한 놈이라 준설공사 시작되면 스트레스로 지레 죽는다.

흥!

하지만 형님!

응?

이번 준설공사는 예전과 다릅니다, 형님!

뭐가.

탁수최소공법과 흡입준설공법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뭣이!

흙탕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그 첨단공법을!

그렇습니다, 형님.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이 이동하는 시기를 피해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사 시작해도 어름치들은 눈썹 하나 까딱 안 할 겁니다!

우왕

좌왕

음….

어떡할까요, 형님?

어떡하긴….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교태

아부

비굴

지느러미가 아주 귀티 나십니다~

EBS '16인의 도전 – 설득의 비밀' 기업 컨설턴트 김종명

"대한민국이여, 설득의 DNA를 살리자"

EBS 다큐프라임 '16인의 도전–설득의 비밀'은 6주간 합숙을 통해 16명의 도전자 중에서 진정한 '설득의 달인'을 가려냈다. 평범한 참가자들을 설득의 귀재로 조련해낸 전문가 김종명 씨를 만나 설득의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설득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가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이다. 몇 년 전부터 설득 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고, 사회 전반에 설득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화제 속에 종영한 EBS 다큐 프라임 '16인의 도전–설득의 비밀'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 영업사원, 사회초년생 등 실제 인물 16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설득의 현장에 투입됐다. 자퇴하려는 학생 설득하기, 야근시키려는 상사 설득하기 등 미션을 부여받아 성공하면 살아남고, 실패하면 탈락했다. 이 프로그램은 6주 동안의 합숙과 출연자들의 미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설득의 기술과 노하우를 알려줬다.

"지시보다 설득하는 리더가 창조적 경영을 이룬다"고 김종명 대표는 강조한다.

16명의 출연자를 '설득의 달인'으로 키워내는 역할은 기업교육 컨설턴트인 김종명 씨가 맡았다. 김 씨는 수십 년 동안 기업교육을 담당해온 컨설턴트이자 〈설득은 밥이다〉라는 저서를 펴낸 '설득 전문가'다.

"설득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타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GE의 잭 웰치를 비롯해 위대한 리더 중에 설득의 달인이 많은 이유죠. 하지만 기업현장에서 체감한 건 우리나라엔 지시하는 리더는 있어도 설득하는 리더는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김 씨가 설득이라는 코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다. 설득이 먹히지 않는 우리 사회 특유의 문화도 연구에 한몫했다. 목소리 크면 이기는 문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남도 하면 무조건 나도 해야 하는 획일화의 문화 말이다. 말 잘하는 사람을 경원시하는 문화도 문제다.

"논쟁 욕구 버리고 잘 묻고 잘 들으면 설득의 달인"

일반적으로 서구사회에서는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이 설득을 잘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달변과 수사학이 곧 설득력은 아니다. 번지르르 말만 잘한다는 둥 진실미가 없다는 둥의 평가가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달변일 필요는 없습니다. 눌변이라도 화두를 던질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감하니까요. 공감의 바탕은 잘 듣는 것입니다. 논쟁하려는 욕구, 지배하려는 욕구를 스톱(stop)하고 상대방에게 질문(question)을 던지고 경청(listen)하는 법이 설득의 기본기죠."

자기과시형 수다나 늘어놓고 윽박지르기 바쁜 TV토론을 보며, 한국인에겐 설득의 유전자가 없는 것인가 회의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삼국통일을 이룬 김춘추의 예를 들며 우리에게 내재하는 '설득 DNA'를 깨우자고 강조한다.

"모든 리더십 안에는 설득이라는 DNA가 존재합니다. 신라의 김춘추는 말로 다른 이들을 움직여 대업을 이뤘습니다. 다시 말해 설득의 귀재죠. 설득의 DNA를 장착한 강력한 개인들이 모여 창조적인 한국을 일궈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G

글 · 정지연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 7월 접수… 기존 부담액서 절반 줄어

희귀난치성 환자 진료비 부담 '뚝'

희귀난치병과 싸우며 막대한 진료비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하면 본인부담금을 기존의 반으로 줄여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동아DB

간호사들과 함께한 난치성질환 어린이들. 등록제 시행은 희귀병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전망이다.

10년 전 신장암을 앓아 한 쪽 신장을 적출한 최인영(68) 씨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재발 및 전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종합병원을 찾는다. 특별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최 씨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 덕이었다. 지난 2월 검진 당시 총진료비는 37만4천원. 최 씨가 지불한 진료비는 그중 8만3천원밖에 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진료비를 부담했기 때문이다.

최 씨의 부담은 올 여름부터 더욱 가벼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입원 및 외래 요양급여 총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기존의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최 씨의 경우 수만원의 돈을 절약하는 정도지만, 연간 수백만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부담하며 장기 투병하는 환자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9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등록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권혜나 사무관은 "이전에는 유사 질병 환자도 같은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한 이들에게만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등록제는 한정된 공단 재원을 좀 더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희귀병 환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등록자에 한해 혜택… 9월 말까지 등록해야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1백38개. 각종 암을 비롯해 중증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자 및 각종 희귀병이 포함된다. 지난 4월에는 발작성 수면, 탈력발작(급격한 감정의 변화로 탈진하는 증상), 지중해빈혈(유전적인 결함으로 적혈구내 헤모글로빈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등 18종이 새롭게 희귀질환으로 추가됐다. 권 사무관은 신규 등록 대상자를 50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등록을 원하는 환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담당 의사가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팩스,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등록을 대행해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엔 병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정식 등록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올해 10월 1일부터는 일반 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입원 20퍼센트, 외래 30~60퍼센트)을 적용받게 된다는 사실도 유념할 것. 이미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G

글 · 김정희 객원기자

문의 · 1577-1000
www.nhic.or.kr/민원마당/보험급여정보

보이스피싱과 전쟁 “당신도 당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사칭’ 전화사기 근절 프로젝트

우체국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접수는 한 달 평균 2만 건이 넘는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다. 우정사업본부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대적인 피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2008년 5월 말

경북 구미에 사는 주부 정 모(43) 씨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 예정입니다’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유창한 한국말로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될 예정”이라며 “○○우체국 집배원 조○○입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정 씨는 “우리 동네 집배원의 이름을 밝혀 진짜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전화사기인 것을 직감하고 “우체국으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욕설을 하며 급히 전화를 끊었다.

#2 2008년 7월 초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 박 모(54) 씨도 ‘우편물 반송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이는 박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전화 번호까지 확인하며 안심을 시켰다. 박 씨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고 있어 처음에는 기관에서 진짜로 전화를 한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박 씨는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가라”는 말에 전화사기인 것을 눈치채고 전화를 끊은 뒤 우정사업본부 민원실로 문의전화를 했다.

일러스트 · 이우정

#3 2009년 3월 초

강원 홍천군에 사는 이 모(75) 씨는 남편과 함께 정기예금 7천만원을 인출하려고 홍천군 양덕원우체국을 찾았다. “카드가 잘못 발급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 씨는 경찰과 검찰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안전한 계좌로 옮기라는 전화도 받은 터였다. 고액에다 만기가 남은 정기예금을 중도해약하려는 이 씨 부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우체국 직원 오선숙 씨는 이 씨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 오 씨는 경찰과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최근의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이 씨 부부에게 설명한 뒤 계좌이체를 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이 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전화로 계좌이체를 해야 안전하다고 말해 시키는 대로 하려 했다”며 “우체국 직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7천만원을 날릴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경찰, 금융기관, 개인고객 등의 요청으로 우체국 예금계좌를 지급 정지했거나, 지급 정지했다가 해제한 건수가 2008년 3천6백95건으로 2007년 1천2백10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에도 서울 성동우체국에서 고객이 4천2백만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해약해 송금하려다 우체국 직원의 확인으로 피해를 막은 일도 있고, 2월에는 서대전우체국에서 부정계좌를 사용한 전화사기 용의자를 붙잡는 등 전화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전화사기범들은 ARS 전화로 택배 도착이나 소포가 반송됐다며 안내를 원할 경우 9번을 누르라고 말한 뒤 연결되면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자세히 물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쓰고 있다.

그러나 우체국에서는 ARS 전화로 소포, 택배 등의 우편물 도착과 반송 예정을 안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담당 집배원이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절대 문의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전화사기가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적힌 우편봉투나 소포상자를 그대로 버리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가 기재된 부분은 반드시 떼어낸 후에 버릴 것"을 당부했다.

"우편물 취급 시 우체국선 개인정보 요구 안 해"

'사례 1'에서와 같이 집배원의 실명을 밝히며 보이스피싱을 하는 지능화된 신종 전화사기도 등장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편물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달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집배원 실명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돼 안타깝다"며 "우편물 도착과 반송에 대한 안내 시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절대 문의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우체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선 매월 둘째 주 월요일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의 날'로 정해 전국 우체국에서 가두캠페인을 전개한다. 집배원들은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꼼꼼히 설명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집배원들은 또 어르신이 사는 집의 전화에 안내스티커를 붙여주고 있다.

아울러 우체국 장비와 인쇄물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우체국 창구는 물론 우편물 운송차량에도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CD/ATM) 메인화면에 보이스피싱 경고 화면을 게시하고 있다.

남궁민 우정사업본부장은 "올해에만 직원들의 올바른 상황대처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거나 용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80건에 이르지만, 전화사기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며 "세부적인 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G

글 · 구자홍 기자

동아DB

전화사기가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우정사업본부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가두 캠페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1.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다.
2. 동호회 사이트 등에 회원 주소록을 싣지 않는다.
3. 자녀의 친구나 담임교사의 연락처를 확보해둔다.
4.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는 금융기관은 없다.
5. 세금 또는 보험료를 환급해준다는 말에 속지 않는다.
6. 동창생이나 종친회원의 입금 요구 시 본인인지 확인한다.
7. 낯선 국제전화나 발신자가 없는 전화는 의심해본다.
8. 걸려온 ARS 전화로 상담원 연결을 하지 않는다.
9. 입출금 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
10.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한다.

국립국악원 '흥보가' 한마당

"여보, 마누라~. 글쎄 제비가 박씨를 물어왔어요"

열린 국악무대 '우면산자락 초록음악회'

7월 5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국립국악원에서 푸른 자연과 함께하는 국악무대 '2009 우면산자락 초록음악회-웃음 더하기(이하 초록음악회)'가 펼쳐진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국립국악원민속악단, 국립민속국악원창극단, 기악단 등 30여 명의 출연진이 판소리 '흥보가'를 맛깔나는 해설을 곁들여 다양한 형태로 선보인다.

이들은 흥보가의 주요 대목을 단막창극과 판소리로 보여주는가 하면 몇 개의 배역으로 나눠 소리를 하는 판소리입체창으로 연출하기도 한다. 심술궂은 형인 놀보가 동생 흥보를 내쫓는 내용을 담은 '놀보와 마당쇠', 흥보의 박에서 돈과 쌀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흥보 박 타는 대목', 흥보가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놀보가 동생에게 화초장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흥보에게 은혜를 입은 제비가 이듬해 박씨를 물고 흥보네 집으로 날아오는 대목인 '제비노정기'를 가야금 병창으로 선보여 우리 소리 장르를 한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악실내악단 '수리'의 대표이자 '우리창극연구회' 단장인 남상일(31) 씨는 "창극에서 이야기로 극을 이끌어나가는 도창 역할을 맡았다"며 "이번 공연은 이야기가 한층 더 흥미진진하고 소리도 더욱 구성지다. 우리 소리의 매력을 느끼고, 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통쾌하고 신명 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국악원이 2003년부터 진행해온 초록음악회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석 초대공연. 다양한 관객층으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받으며 국립국악원의 대표적인 야외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5월부터 매월 사랑, 신명, 웃음, 열정, 행복을 주제로 삶의 소중한 의미를 전하고 있는 초록음악회는 오는 9월까지 이어진다.

일시 7월 5일(일) 오후 8시
장소 국립국악원 야외공연장 별맞이터
관람료 무료
문의 02-580-3300 www.ncktpa.go.kr

뮤지컬 '맘마미아!'

일시 ~7월 23일(목) 화·목요일 오후 3시, 8시, 수·금요일 오후 8시, 토·일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8세 이상 관람가)
문의 02-2088-4115~6 www.ntok.go.kr

뮤지컬 '맘마미아!'에는 전 세계를 통해 사랑받았던 전설적인 그룹 아바(ABBA)의 주옥같은 대표곡 22곡이 그대로 사용됐다. ABBA의 노래를 듣고 자란 세대는 추억에 젖어 다음에는 어떤 곡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볼 정도다. 엄마와 단 둘이 사는 딸이 결혼을 앞두고 엄마의 옛 애인들을 만나 자신의 아버지를 가려낸다는 기막힌 발상을 무대로 옮긴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11개 언어로 막을 올렸으며, 지금도 각지에서 롱런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페르난도 보테로展

일시 ~9월 17일(목) 오전 9시~오후 8시 30분(월요일은 휴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미술관
관람료 성인 1만원, 청소년 9천원, 초등학생 8천원, 유치원생 5천원
문의 02-2022-0600 www.moca.go.kr

라틴 회화의 살아 있는 거장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이 한국을 찾았다. 덕수궁미술관이 새로운 개관을 기념해 6월 30일 '페르난도 보테로' 전을 개막했다. 이 전시회에는 화려한 색채와 풍선처럼 부풀어오른 인체 묘사로 유명한 보테로의 회화 89점과 함께 독특한 입체감을 살린 조각 3점이 공개된다. 보테로 특유의 따뜻하고 풍자적인 작품세계를 직접 감상할 수 있다. G

글·김지영 기자

정예화된 선진강군

마지막 한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
국민과 함께 더욱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 외롭게 남겨진 13만의 호국용사들 …

이들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 신고

- 직접 매장, 목격, 발견 또는 들으신 내용

"사소한 제보 하나가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 02) 748-4999, 811-6514

※ 제보결과 유해발굴시 소정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채혈 참여

- 채혈장소 : 전국 보건소 및 군 병원 (연중)

"단 한번의 채혈로 돌아오지 못한 혈육을 찾을 수 있습니다"

☎ 02) 811-6551 ~ 3

대한민국 국방부

www.mnd.go.kr

민심 듣기 민생 살리기

이명박 대통령, 시장에 가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민생 챙기기에 적극 나섰다. 중도 실용은 이 대통령의 서민 살리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통치 개념이다.
이 대통령은 6월 25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골목상가 안 떡볶이집에서 담소를 나누며 서민들의 삶의 애환에 귀를 기울였다.